

2023
Vol.02

이노아카 VIEW

42서울과 Project-X의 창



Innovation
Academy

인사말씀

'21년 11월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지금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단계와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론 중심의 기존 교육방식과는 달리 자기 주도형 학습과정과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동료학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개발언어와 도구들,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식 습득 활동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 훈련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 방식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을 제대로 학습하고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신 기술을 가르칠 교수, 교재, 실습 환경 등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교육은 디지털 대변환 시대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해법이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이노아카 VIEW'에서는 하반기에 진행된 주요 행사와 다양한 성과를 보여준 교육생분들 그리고 뒤에서 항상 지지하는 매니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특히, 재단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수요형 실무 개발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인 'Project-X'의 담당자 이야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노아카 VIEW'를 통해 저희 재단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교육 방향을 널리 알리고 산업계와, 그리고 개발자분들과 항상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발 앞서 가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서정연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이사장



01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주요 활동

전영표 학장 디지털타임스 기고	4
하반기 주요 행사	5
교육생 동아리 활동	12

02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람들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교육생 스타트업 'SOOBAK' 최진영 대표	17
	교육생 스타트업 '쿨쿨' 김원 대표	19
	교육생 창업준비팀 '이때' 황성준 팀리더	21
개발자로 성장하는 사람들	에릭슨엘지 신입사원, 송승운 교육생	23
	유니크굿컴퍼니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박승한 교육생	24
	SK플래닛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형태 교육생	25
	굳갱랩스 백엔드 개발자, 김성수 교육생	26
	엑셈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성현 교육생	27
	비쥬웍스 백엔드 개발자, 이우상 교육생	28
함께 걷어가는 사람들	SW개발단 광병권 단장	29
	감사실 박용찬 매니저	30
	대외협력팀 송현지 매니저	31
	전략기획팀 이해솔 매니저	32

03 부록

'Project-X' 기능 검증의 해	34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39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 공유 컨퍼런스	42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45
42서울 이벤트 (월렛마켓, 42ish, 수요지식회, 글로벌 밋업)	49
42서울 교육생 앰배서더 콘텐츠 결산	53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주요 영상 보기	57

01

이노베이션 주요 활동

전영표 학장 디지털타임스 기고	4
하반기 주요 행사	5
교육생 동아리 활동	12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전영표 학장 디지털타임스 기고

"첫 과제를 받아든 교육생들의 표정은 한 마디로 '멘붕' 그 자체예요. 홈페이지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만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뭔지를 찾는지부터 난관의 연속이죠. 첫 시험을 치른 교육생의 75%가 0점을 받아요."

전영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은 "SW(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를 꿈꾸며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 도전한 이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무한 좌절"이라고 말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전공과 나이에 상관없이 SW 개발자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모토로 운영되는 SW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프랑스 '에콜42' 프로그램을 도입해 2년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서울시와 협력해 2020년 1월부터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가르치는 사람도 보고 배울 교재도 없다.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SW 실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교재와 교수가 없는 대신 동료 간 협업, 인터넷 활용에 초점을 맞춘 실험적 교육이 이뤄진다. 만 3년을 넘긴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누적 교육생은 2,300명에 달한다. 올 하반기 200명을 추가로 뽑으면 2,500명으로 늘어난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는 10대부터 50~60대, 고졸부터 박사까지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같은 꿈을 가진 이들이 모인다. 사회에서의 성적과 스펙은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초기화된다. 특히 본 과정을 앞두고 거치는 죽음의 예비과정 '라피신'을 통해 교육생들은 확실한 정신무장을 한다. 빈 화면에서 문제부터 찾아야 하는 첫 과제가 주어진 지 10분 정도 만에 절반 이상이 포기한다. 혹독한 정글에 내던져졌음을 실감한 교육생들은 믿을 것은 인터넷 검색과 동료밖에 없음을 절감하고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절대 해내지 못할 법한 과제를 해내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옆자리 동료의 소중함도 깨닫는다.

전 학장은 "처음부터 매우 깊이 있고 많은 것을 다뤄야 하는 문제가 주어진다.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해내더라"고 했다. 학생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몰입과 협업이다.

전 학장은 "요즘 학생들은 거의 혼자 공부하는데 현업 개발현장은 협업의 연속이다. 개발자마다 모듈을 맡아서 개발하고 이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드도 서로 리뷰해 줘야 한다"면서 "이곳에선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대화하고 서로 가르쳐준다. 그렇게 2~3주 차가 되면 0점이 점점 줄어들고 본 과정에 가면 협업이 익숙해진다. 토론과 협업이 몸에 밴 개발자는 기업 현장에 가면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 배운 것 중 SW 개발보다 더 큰 것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내고 협업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과제를 스스로 부딪혀 가며 푸는 경험을 한 이들은 몰입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레벨로 나아간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에콜42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국 상황에 맞는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Project-X'도 진행하고 있다.

전 학장은 "유닉스 기반 C언어 외에 자바, 파이썬 등 언어를 폭넓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한다"면서 "현업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보강하고 멘토링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전 학장은 "기초과정은 기존 방식대로 하되 심화과정에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이나 대학들도 채택해 쓸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31.

42년 'SW 한길' 전문가... "첫시험 0점 멘붕당고 매달려 해내더군요"

하반기 주요행사 언론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지역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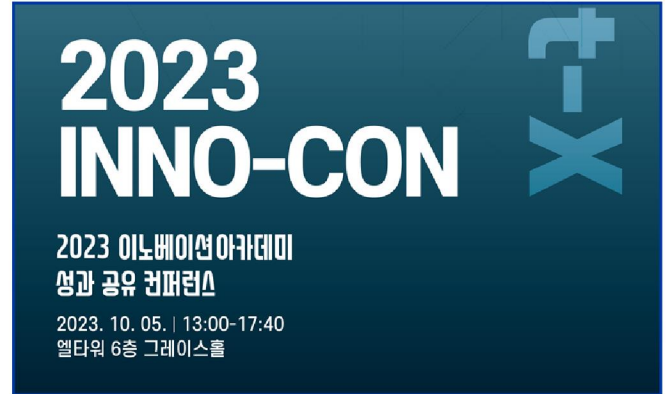
지역에서도 우수한 디지털 혁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23. 09.

42서울 10기 발대식 및 성과 공유 컨퍼런스(INNO-CON) 개최

소프트웨어 교육의 혁신적인 도전은 계속된다.



2023. 09.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부트캠프, 교육생 창업 성과로 이어진다

창업에 도전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



2023. 10.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건국대, SW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SW 생태계 활성화와 디지털 대전환에 일조할 것



2023. 10.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한국과학기술원 SW교육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하드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향상하는 차별화된 SW 인재 양성 기대



2023. 10.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Project-X'를 통한 성남시 청년 SW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2023. 10.

하반기 주요행사 언론

[스타트업·혁신기업] 자는 소리만 듣고도 간편하게 진단... 앱 하나로 '수면무호흡증 해방'

새내기 스타트업 '쿨쿨'



2023. 10.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우송대학교와 'Project-X' 시행협약 체결

'Project-X' 정규교과 첫 도입, 플랫폼 저변 확대를 위한 가능성 타진



2023. 10.

[스타트업·혁신기업] 재미·가치를 동시에... 실력으로 불황에 맞선 K-스타트업 '수박'

게임 즐기며 지식 습득, 공공 이익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 만들어내



2023. 11.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인천대학교와 SW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인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2023. 11.

[지역 소멸, 디지털 혁신이 답] 전영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 "지역 특화 SW 인재 양성"

지역별 특화 산업에 맞춘 SW 교육을 강화해 인재를 양성



2023. 11.

"전세계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코딩이죠"

열정으로 뭉친 입사 한달 신입사원 에릭슨엘지 송승운씨



2023. 11.

하반기 주요행사 언론

“친절과는 거리 있는 ‘42서울’ ...코딩·협업 능력은 확실하게 다졌죠”

'새내기 직장인' 개발자 유니크굿컴퍼니 박승한씨



2023. 11.

새내기 직장인 개발자 “SW 스킬만큼 ‘소프트 스킬’이 빛 발하죠”

SK플래닛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형태씨



2023. 11.

이노베이션아카데미, 'Project-X' 활용 SI반도체 Farm 구축 및 사업 관련 업무협약

국산 S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확산, SW·AI 인재 양성 협력 기대



2023. 12.

새내기 SW개발자 “내가 만든 서비스 칭찬하면 흥이 나죠”

42서울 교육생 출신 군갱랩스 백엔드 개발자 김성수씨



2023. 12.

“SW실력도 결국 사람과 나누는 운기 속에 크더군요”

엑셈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성현씨



2023. 12.

“초조함 버틴 인고의 시간이 SW 실력의 거름 됐죠”

비주웍스 백엔드 개발자 이우상씨



2023. 12.

하반기 주요행사 투어

2023년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방문하신 분들

* 정기 투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투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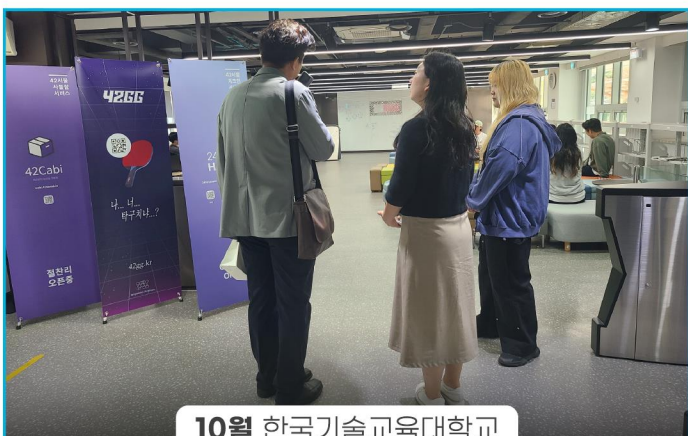
7월 네이버



8월 대청중학교



9월 대청중학교



10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1월 공군

하반기 주요행사 설명회

한 해 동안 교육생과 만난 기업들

2023 기업 방문 설명회

2023년에도 많은 기업이 42서울 교육생들을 만났습니다.

동료학습과 동료평가로 학습하고, 협업해 온 교육생들은 SW인재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2서울은 교재와 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SW생태계에서 강하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교육생이 기업 방문 설명회를 통해 후배 교육생들에게 인사했는데요.

올해 어떤 기업들이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찾아왔는지 함께 볼까요?

1회차

개최일자 1월 9일(월)

참여기업 레브잇

진행방식 오프라인 (기업 사무실 탐방)

LEVIT



2회차

개최일자 5월 10일(수)

참여기업 현대오토에버

진행방식 오프라인 (채용 연계 인턴십 소개)

**HYUNDAI
AutoEver**



3회차

개최일자 6월 29일(목)
참여기업 파수/비주웍스/메디칼 스탠다드/패스트캠퍼스
진행방식 오프라인/온라인

FASOO
VISUWORKS

MEDICAL STANDARD
Fast campus



4회차

개최일자 7월 20일(목)
참여기업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진행방식 오프라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5회차

개최일자 8월 31일(목)
참여기업 오픈베이스/이스트소프트/파이오링크
진행방식 오프라인

openbase
EST
PIOLINK



6회차

개최일자 9월 26일(화)
참여기업 SK C&C
진행방식 오프라인/온라인

SK 주식회사
C&C



7회차

개최일자 10월 12일(목)

참여기업 현대오토에버

진행방식 온라인 (채용 연계 인턴십 소개)

HYUNDAI
AutoEver



8회차

개최일자 10월 26일(목)

참여기업 쏘카/유데미코리아

진행방식 오프라인/온라인

SOCAR

udemy



9회차

개최일자 11월 23일(목)

참여기업 알고리즘코리아/인프랩

진행방식 오프라인/온라인

Algorithm

Inflab



교육생 동아리 활동

42서울 내에는 어떤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42서울 동아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취미나 관심사 또는 목표가 같은 2명 이상이 모인다면
그것이 바로 동아리입니다!

모닝 글로리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고,
많은 동료와 친해질 수 있는 **모닝 글로리**

모닝 글로리는 평일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해 클러스터에 모여서 간단하게 오늘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목표가 없어 힘들다면 모닝 글로리에 등록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집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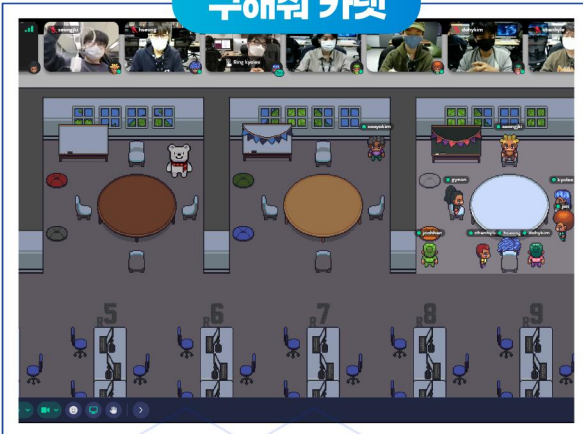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42서울의 도서관 **집현전**입니다.

42 카뎃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집현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집현전에 오셔서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함께 작은 휴식을 즐겨보세요!

구해줘 카뎃



구해줘 카뎃은 규칙적인 시간 동안 공부하며,
매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체크인·체크아웃은 42gathe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체크아웃에서는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꾸준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구해줘 카뎃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f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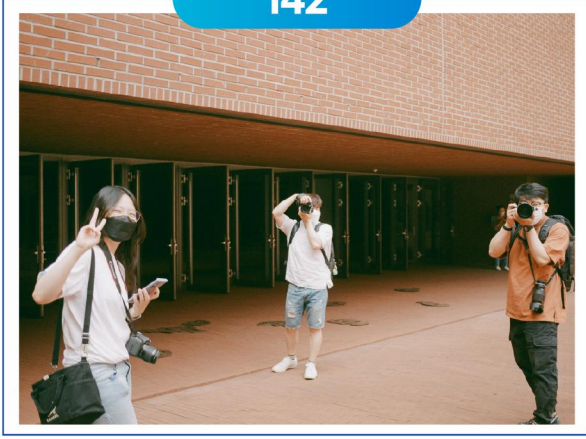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사진 동아리 **f42**

f42은 구경도 하며 사진도 찍는 친목 동아리입니다.

전시를 보러 가거나, 장소를 선택해서 출사를 다닙니다.

RUSH 03



42서울을 대표하는 밴드동아리 **RUSH 03** 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카뎃들이 모여 합주를 하며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하는 밴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규모가 커지면서 숙련도와 음악적 취향으로 나눠 자유롭게 팀을 오가며 연습을 합니다.

실력에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관심있다면 RUSH 03으로!!

비실용적 책읽기



독서를 위한 독서를 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비실용적 책읽기**

우리는 책을 왜 읽을까요? CS 지식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자기 계발을 위해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책이 그냥 재밌어서 읽기도 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가요? 재밌는 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여삶



42서울에서 공부하는 여성의 삶 **사공여삶**

사공여삶은 '42서울에서 공부하는 여성들의 삶'의 줄임말로, 여성 교육생들 간 활발하고 편안한 네트워킹과 정보공유를 위한 동아리입니다. 여러 정기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나 네트워킹하고, 자유롭게 그룹/스터디/프로젝트 활동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공여삶 마스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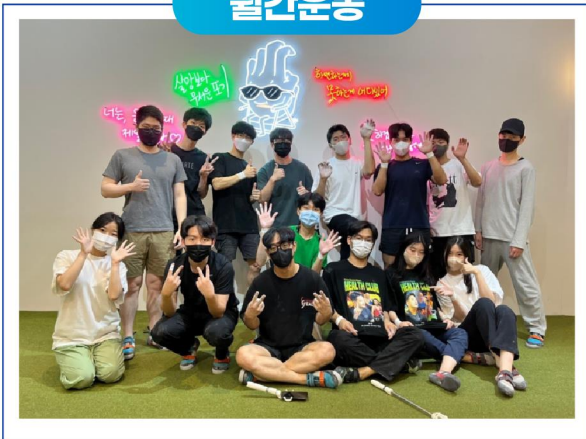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아리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아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아리지만 가끔 날씨 좋을 땐 본분을 망각하고 소풍을 가기도 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아리입니다.

월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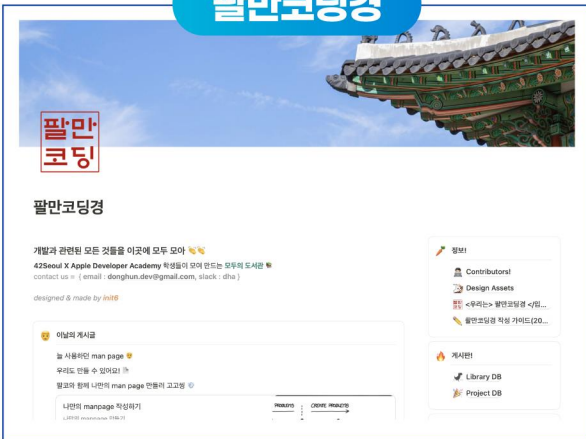


매달 새로운 운동 종목을 투표로 선정해, 카뎃들과 함께하는 종합 운동 세트 월간운동

새로운 카뎃들을 만나 땀 흘리며 친해질 수 있고, 평소 못 해본 운동이나, 여럿이 모여야 하는 종목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코딩합시다!

팔만코딩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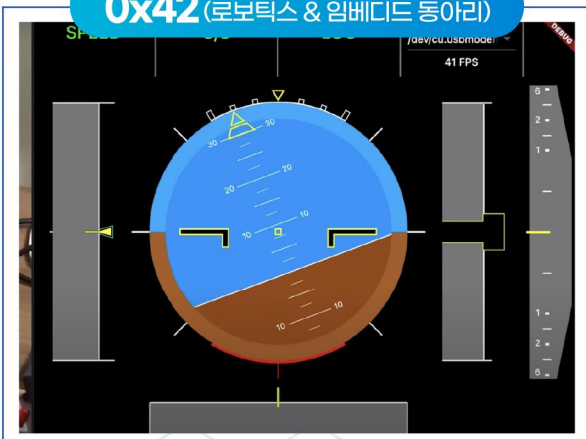


취업, 창업, 학업, 레벨업을 원한다면?! 팔만코딩경

팔만코딩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발자들의 지식저장소입니다.

취업, 창업, 학업, 레벨업을 원한다면?! 팔만코딩경에서 글을 쓰고 지식을 공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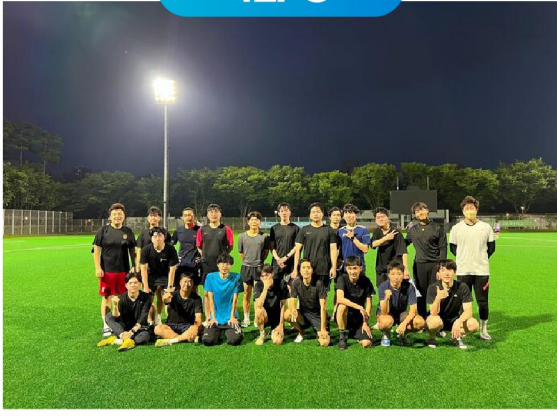
0x42 (로보틱스 & 임베디드 동아리)



동료학습을 통해 로보틱스 및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 능력을 향상하고 싶다면 0x42로 오세요!

로보틱스와 IoT 같은 임베디드 분야에 대해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42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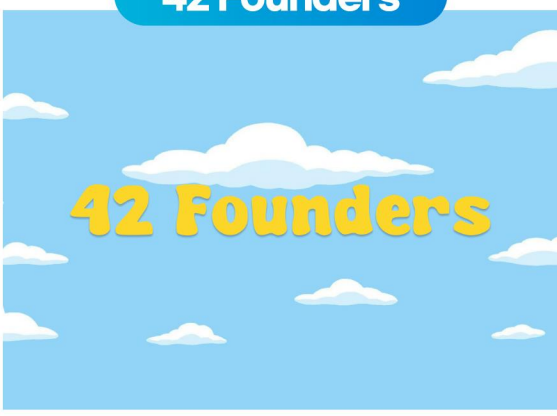


인생은 짧고 축구는 즐겁다! 42FC

공부만 하다 보면 생기는 신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동아리입니다.

월 2회 정기적으로 모여서 풋살을 합니다.

42 Foun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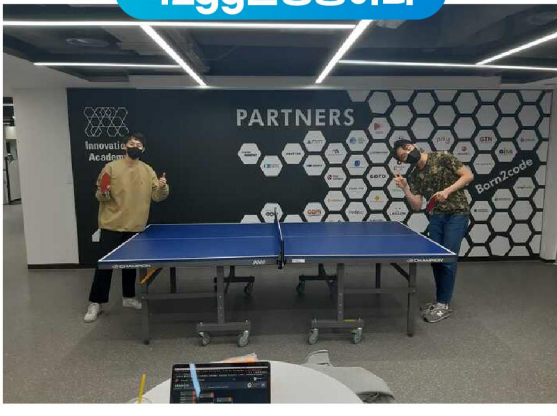


취업보다는 창업이나 1인 개발에 관심 있으시다면 42Founders

교육생 중 개인 활동, 서비스 제작, 외주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환영입니다! 주기적으로 모여 정보 공유를 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42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직접 돈을 벌어보는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42gg운영동아리



42서울 사람들을 위한 탁구 서비스 42gg

42서울을 위한 탁구 서비스 42gg를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탁구 대회, 시즌 결산 등을 진행합니다.

42peer



Don't Panic! 은하수를 혼자 여행하려 하지 말 것! 새롭고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동료 학습을 하고 싶다면 42peer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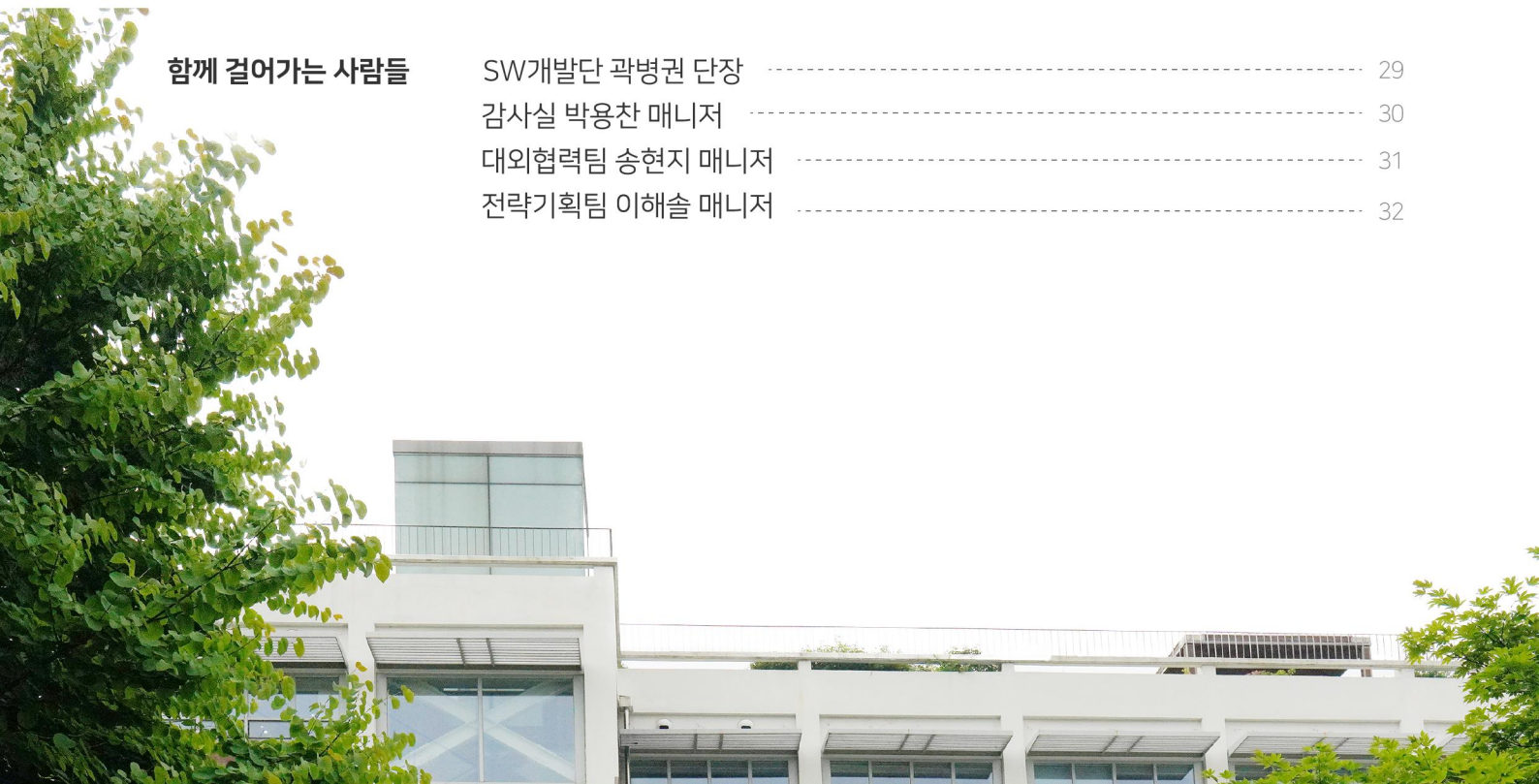
42peer는 동료들과 활발한 교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 동아리입니다.

42peer에서는 다양한 스터디/프로젝트 활동, '지식품앗이', '오프 더레 코드', '모여봐요 과제의 숲' 등을 하고 있습니다.

02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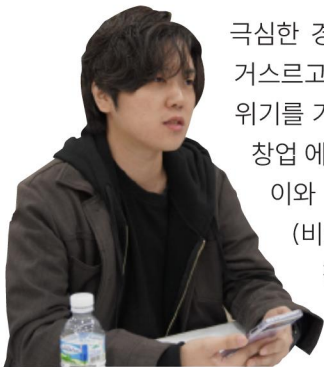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교육생 스타트업 'SOOBAK' 최진영 대표	17
	교육생 스타트업 '쿨쿨' 김원 대표	19
	교육생 창업준비팀 '이때' 황성준 팀리더	21
개발자로 성장하는 사람들	에릭슨엘지 신입사원, 송승운 교육생	23
	유니크굿컴퍼니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박승한 교육생	24
	SK플래닛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형태 교육생	25
	굳갱랩스 백엔드 개발자, 김성수 교육생	26
	엑셈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성현 교육생	27
	비주웍스 백엔드 개발자, 이우상 교육생	28
함께 걷어가는 사람들	SW개발단 곽병권 단장	29
	감사실 박용찬 매니저	30
	대외협력팀 송현지 매니저	31
	전략기획팀 이해솔 매니저	32



창업을 시작 하는 사람들

교육생 스타트업 'SOOBAK',
기능성 모바일 게임 출시

'수박'이 재미와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SOOBAK 대표 최진영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 위축된 창업 심리를 거스르고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의 도전으로 사회에 창업 에너지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능성 모바일 게임 'BOB (비오비·Basis of Bitwise)'를 개발한 청년 창업가 최진영 수박(SOOBAK)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진영 대표는 'BOB'를 통해 학업 성취도 향상 부트캠프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상을 수상했는데요. '수박'팀이 만든 'BOB'는 어떤 게임인지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세요!

창업에 뛰어들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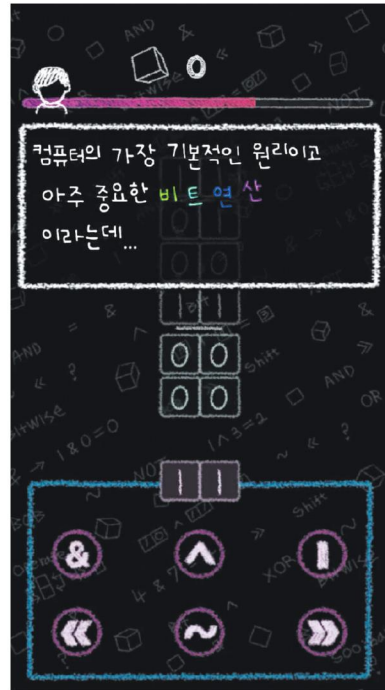
A: 저는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42서울 교육생 출신입니다. 42서울 공통 과정에서 만난 이정빈 기술 총괄, 안세현 운영·마케팅 총괄과 팀을 꾸렸어요.

올해 팀과 함께 재단에서 처음 추진한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보상 시스템을 통한 동기부여 메커니즘 기능을 탑재한 기능성 게임 'BOB'를 출시했어요.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A: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는 올해 처음 시행됐어요. 학업 성취도 향상 부트캠프는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사업화(창업) 역량 강화, 아이템 점검, 사업 구체화 등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참여 대상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정규 과정인 42서울의 교육생들입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42서울 교육, 부트캠프, 해커톤 등의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능성 모바일게임 'BOB'

다른 콘텐츠도 많은데, '게임'으로 창업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A: 어려서부터 많은 게임을 플레이해왔는데요. 게임은 적극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콘텐츠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점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즐거움뿐 아니라 유익한 가치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개발하신 'BOB' 게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BOB'는 컴퓨터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비트 연산을 활용한 두뇌 활동 퍼즐 게임이에요. 총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모드는 빠른 연산 실력을 필요로 하는 '스피드 모드'예요. 두 번째 모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최적의 답을 찾아내야 하는 '퍼즐 모드'입니다. 낯선 비트 연산자들이 적힌 버튼들을 사용자가 직접 누르도록 유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각 연산자들의 역할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한 게임을 즐기면서 비트 연산에 친숙해질 수 있어요.



SOOBAK 로고

기능성 게임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성 게임을 바탕으로 개발하면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A: 기능성 게임은 기존 게임이 지닌 재미 요소에 교육, 학습, 훈련, 치료, 사회적 문제 해결 등 특별한 목적을 접목한 형태를 말해요. 한 마디로 게임을 즐기며 지식의 습득,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기존의 기능성 게임은 지나치게 '기능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죠. 전 이러한 부분이 아쉬웠어요. 'BOB'는 바로 여기에 문제의식을 두고 탄생했어요. 재미 요소를 잃지 않은 기능성 게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BOB'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에요.

'BOB'를 통해 얻은 성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BOB'를 개발할 때 게임 본연의 재미에 집중하다 보면 수학적 내용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고안했어요. 실제 주위에서도 전공자가 아니거나 비트 연산을 모르는데도 게임 랭킹이 높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사용자가 화면에 나오는 지식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사용자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도 'BOB'를 개발 하면서 고민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수박 팀은 'BOB'로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에서 낸 성과를 인정받았는데요. 지난 10월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 공유 컨퍼런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앱 마켓 등록 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한국 300여 명, 인도 400여 명, 미국 20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의 사용자가 유의미한 플레이 시간을 기록 했어요.

인도와 미국에서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저도 처음에 왜 인도와 미국에서 참여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생겼는지 의문이었어요. 생각해 보니 세계에서 소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더라고요.

현재 작지만 인앱 내 구매와 광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BOB'는 퍼즐 모드 스테이지 추가와 멀티플레이 신규 모드 도입, 디자인 업데이트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일을 지속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게임으로 풀어내고 싶어요.

특히 유아, 청소년을 넘어 특정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일한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참여 팀명인 'SOOBAK'으로 사업자 등록도 했어요.

이번 'BOB'에 보내주신 관심 덕분에 소프트웨어 학습과 관련한 게임을 새롭게 기획 중이에요. 빠르면 2024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게임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나요?

A: 적응, 도전과 보상, 실패와 반복, 빠른 피드백 등 게임의 요소는 모두 훌륭한 학습 도구예요. 'BOB' 기획 단계에서 '게임을 통해 좋은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 같아 뿌듯하고 많은 분께 감사해요.

앞으로 수박(SOOBAK)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게임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요.



교육생 스타트업 '쿨쿨',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원스톱 케어 솔루션 출시

수면무호흡증 측정·분석 앱 '쿨쿨'로 간편하게 진단받자!



쿨쿨 대표 김원

혁신은 불편함을 기회로 바꾸며 탄생합니다. 김원 대표도 일상 속 불편함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 기회로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막 발걸음을 뚝 새내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 대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스타트업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면무호흡증 측정·분석앱(애플리케이션) '쿨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회사 및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쿨쿨'이라는 수면무호흡증 측정·분석 앱을 개발한 김원 대표입니다.

저는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 증상을 겪은 후, 양압기를 대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했어요. 쿨쿨은 이제 막 창업에 발걸음을 뚝 새내기 스타트업이에요.

수면무호흡증 측정·분석 앱 개발 사업을 구상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있는 사람이 '양압기'를 대여하고 건강검진 혜택을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먼저 병원에서 하룻밤을 숙박하면서 각종 검진 장비를 몸에 붙여야 합니다. 그 후 검진 결과가 일정 기준치를 넘어야만 하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앱으로 간편하게 진단을 받고 양압기 대여와 건강검진 적용까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어떠한 불편감을 주나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잘 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상을 말해요.

수면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잠을 오래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죠. 고혈압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알려면 AHI(무호흡·저호흡, Apnea-Hypopnea Index) 지수를 확인해야 해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진행되는 '표준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AHI와 양압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AHI는 한 시간 동안 발생한 무호흡 또는 저호흡의 수를 의미해요. AHI 5~15는 경도(Mild), 15~30은 중등도(Moderate), 30 이상은 심한 정도(Severe)로 평가합니다.

양압기는 수면 중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공기압력을 가해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계예요. 수면무호흡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계이죠.

하지만 양압기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려면 AHI 지수가 5 이상이면서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이어야 해요.

이를 위해 병원에서 각종 검진을 받아야 하기도 하죠.

처음부터 비부착방식을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전에 기획한 것에 대한 시행착오 과정이 있나요?

A: 처음에는 수면무호흡증을 측정할 때 산소 포화도 측정기 레코딩(Recording) 기능을 기획했어요. 하지만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진단받을 때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애플워치 등도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만 잠이 들 때는 충전을 해야 해요. 수면 중에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 불편해 잘 착용하지 않죠. 그래서 비부착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비부착방식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A: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부착방식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로 특허를 확보해 앱에 적용하려 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수면 중 얻어지는 오디오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오디오 데이터를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해 코드화해서 앱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SW 개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을 곧바로 창업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W 개발 역량과 사업 기반을 다진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A: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설립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사업 기반을 다졌어요. 현장 프로젝트와 동료에게 배우는 P2P (Peer to Peer) 교육 과정을 거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정규 과정인 42서울 교육과 함께 올해 처음 추진된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요.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는 42서울 교육생들이 사업화·창업 역량 강화, 아이템 점검과 사업 구체화, 제품 개발, 프라이빗 IR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 다양한 진로 모색 등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면서 도움받았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안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덕분에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죠.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컨설팅도 받을 수 있었어요. 창업 준비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도움을 얻었어요. 개발자 채용까지 세심하게 살펴주고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떠한 기술로 쿨쿨의 서비스를 발전시킬 생각이신가요?



A: 앞으로 침대에 센서를 넣고 측정하는 방식 등을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단계에선 가장 간단한 방식의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어요.

교육생 창업준비팀 '이때',
일정 관리 기능을 보유한 캘린더 서비스

'이때'로 약속 시간을 정해봐요!

이노베이션아카데미 42서울 지원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서비스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절 믿고 같이 일할 팀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혼자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 앱을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또 42서울을 지원할 때나 지금이나 월급을 쥐여줄 만큼 저축해 놓은 돈도 많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정도로 역량이 많지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 온다면 저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개발자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42서울에서 공부하다 보면 창업할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어요.

현재도 계속해서 함께할 팀원을 찾고 있고,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42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예비 개발자이지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다들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겠죠. 그때는 커뮤니티의 힘이 더 커져서 영향력도 커질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팀원과 역할, 모이게 된 계기를 소개해 주세요.

A: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창업 부트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42서울 교육생으로만 팀을 모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공부하는 주변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트캠프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 분들끼리 개포 클러스터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거기서 태권(42 ID: tyi)님과 얘기를 했고 제가 느낀 문제점을 크게 공감하면서 합류를 생각했죠. 태권님의 도움으로 한결(hakim)님과 남준(nheo)님과 미팅할 기회가 생겨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4명이 모였어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흥미를 느끼고 프로젝트도 경험해보고 싶어 하셨던 유정(yujelee) 님까지 모여 팀을 만들었어요.



이때 팀 리더
황성준(왼쪽 하단)

'이때'는 어떤 회사·서비스인지 소개해 주세요.

A: '이때'로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떠올랐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항상 언제 불지 서로 얘기만 하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흐지부지되어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들 바쁘게 사는 사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라는 서비스로 만날 시간을 정하는 기능을 가장 먼저 개발한 이유도 많은 분이 이 문제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정 조율과 시간 관리를 더 편하게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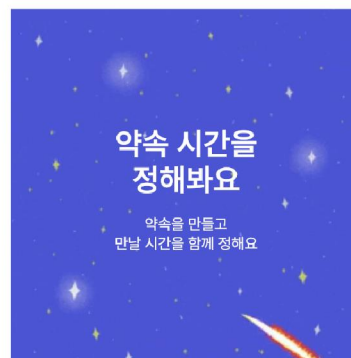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과 길게 말하지 않고도 약속을 잡을 수 있다면 제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 진행 현황과 성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A: 원래 목표는 공통 과정이 끝난 뒤 서비스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었어요. 공통 과정 진행 중에 재단에서 부트캠프를 열었고 참여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팀원을 모집하고 약 3주 동안 서비스 개발에 집중했어요. 사실 구현하고 싶은 건 매우 많았지만, 같이 참여했던 태권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작업량을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고 특정 문제만 해결해보기로 했어요.

부트캠프 때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다들 만나는 날과 시간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확실한 시간을 표시해서 모두가 가능한 시간을 찾는 거였어요.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건 아니지만 지금도 'ittae.com'으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디자인 의뢰를 통해 로고도 만들고,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서비스도 출시하는 경험을 가졌어요. 아직 자랑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알음알음 42서울 내부에서 사용하고 피드백도 주고 계셔서 개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통 과정이 끝나면 개선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때' 메인 화면



기존 일정을 관리하는 캘린더 서비스에서 어떤 불편을 느껴 서비스를 개발하셨나요?

A: 기존 캘린더의 불편한 점은 입력 단계인 것 같아요. 뭘 하든간에 일정을 추가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키보드로 입력해야 하는 게 저는 가끔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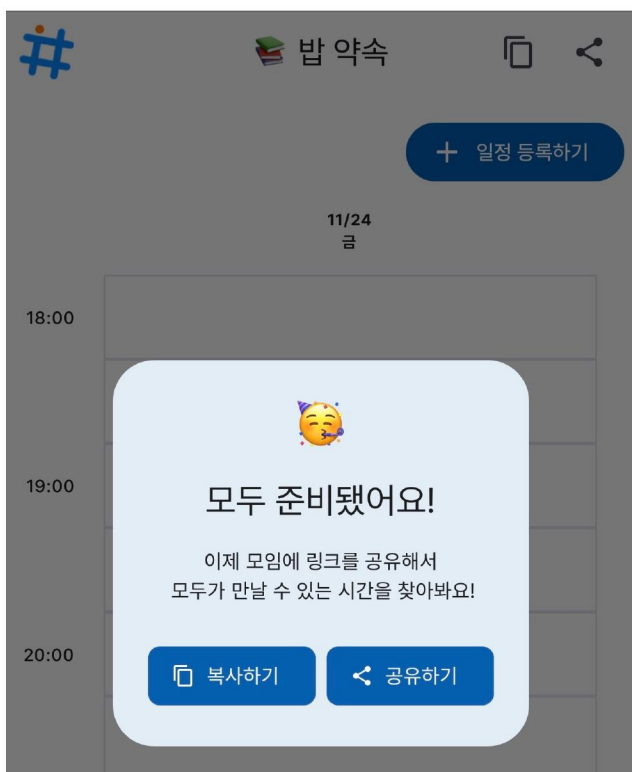
그럴 때마다 추가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참지만, 손으로 입력하는 과정이 없어진다면 더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한 점도 해결하고 기존 캘린더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이때'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서비스의 차별점이고 강점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가까운 시일 내 구현하고 싶은 기능이 있나요? 그리고 '이때'를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싶나요?

A: 가장 구현하고 싶은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날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기능과 회원가입 기능이에요.

'이때' 링크를 공유받아 접속한 뒤, 다들 가능한 날짜를 투표할 수 있는데 결과 페이지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시간대를 골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투표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단독방에서 "우리 이 날 보기로 한 거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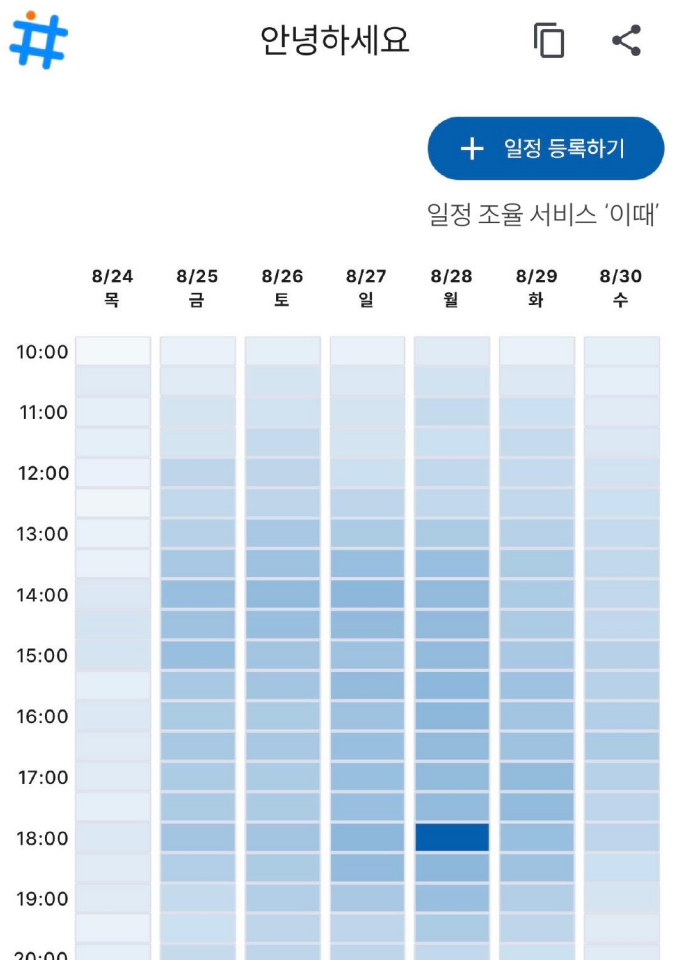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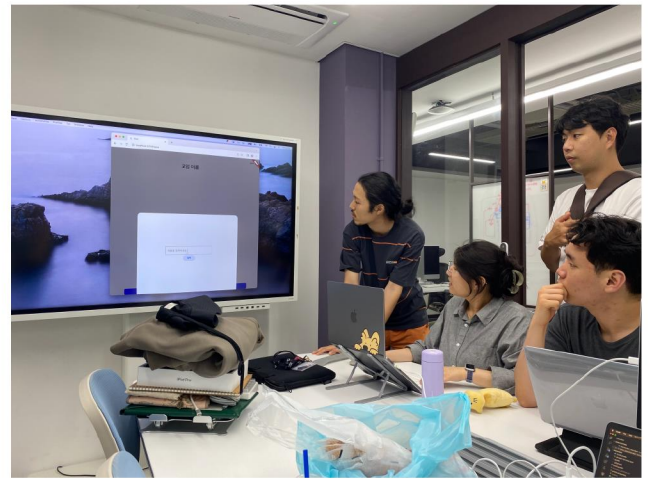
회원가입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회원 관리와 연관되는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자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공통 과정 돌파 이후에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서 '이때'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캘린더는 이미 다양한 서비스들이 선점해있는데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이미 구글 캘린더나 네이버 캘린더 같은 달력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한 부분은 생산적인 면보다는 사용자에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보조하는 서비스가 되려고 합니다.

일정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심심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과 내일 뭘 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비슷한 기능으로 경쟁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부족하기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전세계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코딩'이죠

2023.11.10. 디지털타임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과학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하던 인공지능과 관련 윤리에 대해 공부하게 됐어요. 인공지능은 2017년에도 매우 뜨거운 주제였거든요."

지난 10월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엘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송승운씨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건 해박아 하는 성격이다.

그런 그에게 소프트웨어와의 만남은 필연적 이었다.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접한 그는 대학의 해외연수 신청 공고를 보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기업들이 포진한 미국행에 도전했다. 그는 미국에서 친지, 친구 등 부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해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을 인터뷰하고 업무환경을 견학했다.

그때가 바로 그의 터닝포인트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ROTC 임관을 앞두고 군대와 개발자의 삶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2019년 겨울, 42서울 1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3無(교수 교재 학비 없음) 교육 이념에 호기심을 가진 그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커리큘럼이 알차다고 판단해 주저 없이 지원했다. 그렇게 1기 1차 라피신(예비과정)으로 처음 42서울과 인연을 맺었다.

42서울의 큰 장점은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처음 만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실력을 키우는 42서울 교육과정은 그와 잘 맞았다. 성취감도 크고 프로그램 지식이 차근차근 쌓였다.

송씨도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42서울에서 제공하는 베네피트 사이트, 교육장 공유 우산사이트, 아침 출석 체크 사이트 등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들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고도화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소통하고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



에릭슨엘지
신입사원 송승운

본과정을 마친 송씨는 현재 에릭슨 R&D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세션 컨트롤 플레인 부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제 업무는 에릭슨 무선 기지국들과 그 기지국을 통해 들어온 통신을 처리하는 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휴대전화가 기지국과 물리적으로 신호를 연결했을 때 그 이후에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 해야 하는 과정을 구현하는 거죠.

제가 개발할 기술이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열의를 가지게 됩니다. 전 세계가 숨 쉬듯 사용하는 서비스에 제 코드가 들어간다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해요."

장기적으로 개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그는 "더 전문성 있는 C++ 개발자가 되고 싶다. 소화해 낼 수 있을 때까지 회사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배워서 더 좋은 소스코드로 회사에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에릭슨엘지 로고



친절과는 거리 있는 '42서울'

코딩·협업 능력은 확실하게 다졌죠

2023.11.17. 디지털타임스

"처음 42서울의 과제를 접하고 든 생각은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과제에 대한 설명서가 있지만 혼자서는 과제를 해나가기 힘들었죠. 그때 '동료학습이 중요하다'는 42서울의 정신이 떠올랐어요."

콘텐츠 생성 플랫폼 스타트업 유니크굿컴퍼니에서 개발자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박승한씨는 42서울(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느낀 막막함을 이같이 떠올렸다.

박씨는 대학에서 소프트웨어와 법학을 복수전공했다. 대학에선 개발 프로젝트에 몰입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기 힘들었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42서울'을 알게 됐다. 42서울을 알아갈수록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해 실력을 쌓아가는 교육방식과 동료학습이 도움 될 것 같았다.

박씨의 생각은 정답이었다. 과제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동료에게 물어보고 함께 여러 가설을 세우고, 학습 문서를 공유하며 헤쳐 나갔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설을 세우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문을 대하는 순수한 사고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42서울은 동료학습뿐 아니라 평가도 동료평가 방식으로 한다. 서로의 과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각자가 어떻게 과제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동료에게 과제를 설명하는 중 이야기 하는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박씨는 이런 과정을 겪으며 '소프트 스킬'을 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리얼월드' 앱과 사내 앱을 개발하며 사용자의 피드백과 개선사항을 해결하고 고도화하고 있다.유니크굿컴퍼니는 '리얼월드'라는 능동형 게임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증강현실(AR)은 물론 QR코드, GPS 등 실감 기술들이 더해졌다. 때문에 스크린 밖의 사람과 교감하는 미래형 스토리텔링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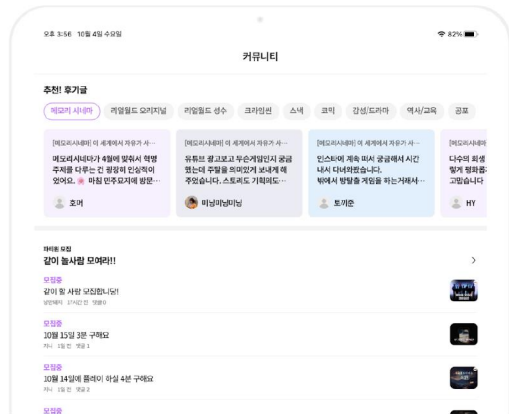
유니크굿컴퍼니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박승한

학교 과제로 앱을 만들었을 때부터 '리얼월드' 앱 개발자로 일하는 지금까지, 박씨는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고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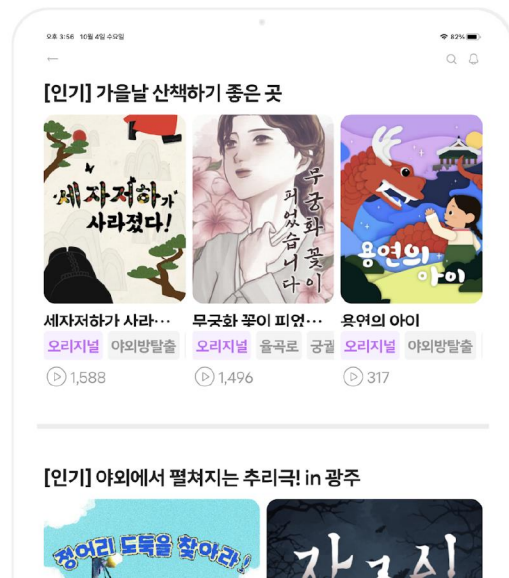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는 "42서울에서 배운 기본에 충실한 교육방식이 회사에서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온 사람과 네트워킹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적 사고를 배우고 싶다면 42서울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같이 게임할 사람? 쉽고 빠르게 찾아오



야외 방탈출부터 이색 체험까지



새내기 직장인 개발자 SW 스킬만큼 '소프트 스킬'이 빛 발하죠

2023.11.25. 디지털타임스

"직장 내 팀에서 소속돼 개발자로 일하다 보니 코딩 실력만큼 중요한 게 동료들과 소통하고 필요할 때는 그들을 설득하는 '소프트 스킬'이더군요. 그걸 미리 배우고 경험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작년 7월부터 SK플래닛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는 김형태 매니저는 자신이 개발자로 살게 될 거란 걸 알지 못했다. 중학교 때 엄마가 보내준 학원에서 비주얼베이직을 배웠을 때, 대학교 신입생 때 C언어를 배웠을 때 반복문으로 간단한 함수를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대학에서 대기과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은 은행권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요즘 시중 은행들도 차세대 등 점점 IT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개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42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기를 모집할 시기였고 전형도 간단해서 지원했다.

큰 고민 없이 도전한 과정은 처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다. 무작정 고난의 길로 밀어 넣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이었다.

"42서울 교육생 선발과정인 라피신 첫날이 생각납니다. 아이맥에서 한영 전환하는 법도 모르고, 컴퓨터를 켜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과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설명서를 읽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재 SK플래닛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팀에서 진행하는 B2B, B2C 서비스에 투입돼 일하고 있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 42서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걸 매 순간 느낀다는 김 매니저는 "42서울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뉴얼을 꼼꼼히 분석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코드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작성한 코드를 설명해야 했는데 이게 바로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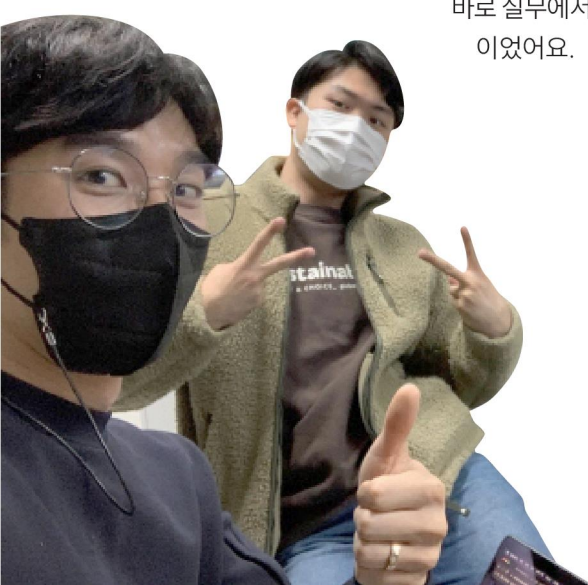


현재 SK플래닛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팀에서 진행하는 B2B, B2C 서비스에 투입돼 일하고 있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 42서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걸 매 순간 느낀다는 김 매니저는 "42서울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뉴얼을 꼼꼼히 분석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코드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작성한 코드를 설명해야 했는데 이게 바로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었어요.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정리해 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팀 동료들을 설득하는 모든 과정들이 42서울에서 하던 활동 그대로죠"라고 말했다.

"이번 12월에 제가 개발한 서비스가 출시되는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위주로(Wezuro)'를 검색해 주세요"라는 김 매니저는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12월에 출시하는 서비스의 앞단을 완벽하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한순간도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로그래밍이라는 도구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김 매니저는 "한가지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매몰되지 않고,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개발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SK플래닛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형태 (오른쪽 첫 번째)

개발자로 성장하는 사람들

군갱랩스 백엔드 개발자, 김성수 교육생

새내기 SW개발자 내가 만든 서비스 '칭찬' 하면 흥이 나죠

2023.12.02. 디지털타임스

"C언어나 기본적인 변수조차 몰랐기에 개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42서울의 라피신(예비 과정)을 알게 되어 지원했어요. 42서울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료학습이라는 점이安心이 되었어요."

올해 5월 메타버스 기술 기업 군갱랩스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기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김성수씨의 이야기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42서울에 도전한 김씨의 앞에 놓인 과정은 험난했다. 비전공자로서 컴퓨터 공학에 대한 개발 지식이 없다 보니 42서울 적응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주입식 교육에 적응돼 있어서 스스로 교재, 교수 없이 과제를 해결하는 게 버거웠어요. 그리고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옆 사람에게 다가갈 수 밖에 없는데 다가가는 것 또한 생각보다 어려웠죠"

김씨는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학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교육장에 나가 준비했어요"라고 말했다.

42서울에 들어가면 파이썬, 자바 같은 개발언어와 백엔드, 프론트 엔드 등 웹 개발의 개념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180도 달랐다.

특히 배우는 방식이 낯설었다. 원리를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차츰 희망이 보였다. "성격이 급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코드를 바로 보곤 했는데 동료들과 몇 주 동안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처음 보는 문제를 대할 때의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됐어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고민과 사고방식을 배우는 인고의 시간이었죠. 빨리 해결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믿는 지금 세대에게 한 번쯤은 이러한 방식을 경험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씨는 현재 군갱랩스(GoodGang Labs)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 군갱랩스는 웹3 아바타 3D기술 스타트업으로, 차세대 아바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그 중 사람과 사람, 사람과 AI를 아바타로 연결해 주는 '휴먼 투 아바타'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저의 목표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자동화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김씨는 "42서울 내에서 공지 사항을 알려주는 42Noti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현재 누적 사용자가 800명 이상으로 지금도 교육생들이 자주 찾아보고 이용하는 서비스여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식단 알림 봇을 개발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자 직원들이 "너무 편하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줬다. 그런 반응을 얻을 때마다 간단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싶은 생각에 벅차온다고 김씨는 밝혔다.

"제가 생각하는 42서울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에요. 개발자로서의 사고방식과 자세를 배우고 역량을 충실히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에요. 42서울 교육을 통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난이도 높은 과제에 도전하고, 이를 해냈을때 성취감과 최고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42서울만이 갖고 있는 큰 매력이라고 봐요."



군갱랩스 백엔드 개발자 김성수



웹3 아바타 3D기술
스타트업, 군갱랩스

SW실력도 결국 사람과 '나누는 온기' 속에 크더군요

2023.12.12. 디지털타임스

"42서울은 저에게는 행운이자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개발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고자 에꼴42를 포함해 글로벌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가 생기길 바라던 와중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42서울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날 바로 주저없이 지원했죠."

현재 엑셈(EXEM)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성현씨는 비전공자 출신이다. 그는 42서울 생활을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큰 좌절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동료들의 지원과 따듯했던 힘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워낙 컴퓨터공학 지식도 없고 사고방식도 개발자 스타일로 로직화돼 있지 않아 정말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매번 한발 먼저 나가서 제 손을 끌어당겨 주었어요."

특히, 그가 42서울 교육에서 제일 성취감을 느낀 순간은 지금도 1000건 이상의 월 실사용자(MAU)를 기록하고 있는 '42cabi'라는 상용 웹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이다.

'42cabi'는 42서울 교육장 내 사물함 관리 서비스, 사물함의 대여 및 반납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기획하고 만든 서비스다.

현재 재직 중인 엑셈(EXEM)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그리고 다양한 개발자 자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는 프론트 엔드 팀에서 사용자들이 본인이 개발 중인 서비스의 자원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그는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해 업무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며 'OO님'으로 부르는 수평적인 문화와 건전한 코드 리뷰 문화를 갖추고 있다고 자랑했다.

"관계를 맺고 키워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누구나 그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현씨는 현재 교육 플랫폼 개발 및 DevRel(developer Relation) 분야에서의 도전을 계획 중이다. 개발자로서 더 큰 성장을 이룬 뒤에는 IT업계에서 성장과 도전, 지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엑셈 로고

엑셈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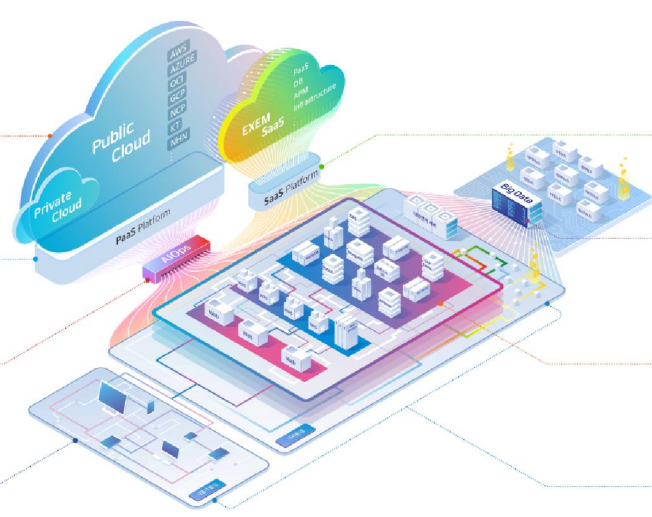
EXEM Solution Map

MaxGauge for CloudDB
Cloud 기반 Database 통합 성능 관리
Cloud 기반의 상용 오픈소스 Database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atabase 전문 모니터링 솔루션

CloudMOA
다양한 Cloud 환경에 대한 통합 관리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규모 IT 인프라의 PaaS 및 SaaS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

XAIops
지 기반 IT 운영 지능화
기업의 다양한 IT 인프라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및 학습을 통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이상 제보를 방지하고, 미래 장애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IT 운영자 인력적 부담을 저감하는 솔루션

InterMax for Mobile
모바일 전 영역 성능 관리
앱 운영에서 서비스 개발까지 모바일 전 영역에 걸쳐 앱의 품질을 관리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솔루션



DataSaker
IT 종합 Observability SaaS 플랫폼
Host, Kubernetes, Database, Application, Log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IT 시스템 전반의 가시성을 제공하는 Observability 솔루션

EBIGs
Big Data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Big Data 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보안, 운영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Apache Hadoop Ecosystem의 코어, 플러그인 및 운영 인력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제공하여 시스템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솔루션

MaxGauge
Database 성능 관리
초대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하 상황은 빠르게 인지하고, 모든 성능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Database의 가용성 및 성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

InterMax
Application, End-to-End 성능 관리
End-to-End 가용성을 통하여 IT 구현의 성능 관리를 통합적 효율적인 수행하기 위한 Application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초조하게 인고의 시간이 SW 실력의 '거름' 됐죠

2023.12.12. 디지털타임스



비쥬웍스 백엔드 개발자 이우상씨

"군대를 전역한 뒤 국비지원 코딩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스템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했어요.

직장생활은 즐거웠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저만의 아이템을 만들고 런칭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다시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이우상씨는 기본에 충실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 컴퓨터 공학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자기주도형의 교수, 교재, 학비 없는 3無 교육철학과 교육생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꼼꼼히 따진 후 회사를 퇴사하고 42서울의 선발 프로그램인 라피신 과정에 도전했다.

42서울에서는 2500명 넘는 교육생들이 교육장 안에서 24시간 자유롭게 함께 하면서 학력, 배경과 상관 없이 코딩을 배운다.

42서울 교육플랫폼에서는 라이브러리 직접 구현하기, 3D 그래픽 게임 구현하기 등의 신선한 과제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C, C++ 언어로 과제를 진행한다.

개발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이씨에게도 42서울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커리큘럼 상에서 단계가 높ی 올라갈수록 과제의 난이도도 급격히 높아졌고 그림에도 잘 헤쳐가는 예비 개발자들이 있다 보니 열등감을 느낀 순간도 있었다. 생각보다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초조함도 느꼈다.

"ft_containers라는 과제를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C++ 표준라이브러리를 직접 구현하는 과제로 중간중간 등장하는 개념들이 어려워 한 달간 교육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과제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요.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에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때를 기점으로 개발을 시작할 때 스스로의 이해하는 과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비쥬웍스 기업 방문 설명회

이씨는 눈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안과의사의 진단을 돕는 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비쥬웍스라는 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의료 지식과 현장에 대해 배워야 하고 실제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개발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워요. 또 스타트업이라 열린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주도적으로 일하며 개발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배우는 부분은 큰 장점이예요."

이씨는 백엔드 분야에서 실무 현장경험을 가진 개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42서울'이었어요. 각자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가진 분들, 똑똑하고 개발에 진심인 분들과 함께 공부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개발자가 되기 위해 어디서 공부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 42서울에 도전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함께 걷어가는 사람들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SW개발단 곽병권 단장

ENTP

직급 : 단장

소속부서 : SW개발단

담당업무 : 새로운 교육시스템 개발/운영 총괄

이메일 : bk.kwak@innoaca.kr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단장으로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 'Project-X'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Project-X'는 산업 수요형 실무 개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플랫폼으로, 학습자들은 PBL 방식의 현장형 학습 콘텐츠로 기술을 익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동료학습으로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하드스킬' 뿐 아니라 '소프트스킬'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에는 'Project-X'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은 상세하게 어떤 것인가요?

A: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Project-X'의 전략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부터 운영, 교육 방향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저희 시스템의 필요성과 장점을 다양한 교육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는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3년 건국대, 숙명여대, 서강대, 연세대, 단국대, 우송대 및 서울특별시, 성남시청소년재단,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시험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담당자님에게 이노베이션아카데미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A: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도전입니다. 특히 42 Seoul 및 'Project-X'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최첨단 교육 시스템입니다.

'Project-X'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수요 기관과 소통하며 적용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요?

A: 2023년 9월 재단의 2단계 사업 워크샵에서 MVP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건국대 학생들과 'Project-X' 시험 운영으로 만났을 때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질문의 수준이 높아 모두를 놀라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A: 올해의 시험 운영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내년도 확대 적용 제안을 받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규모를 키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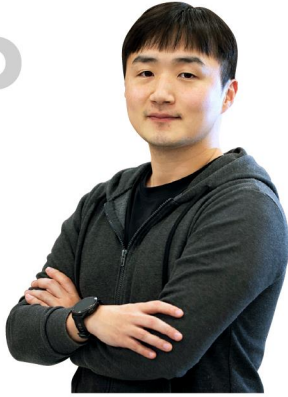
한국의 소프트웨어인재양성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재기 발랄한 활동가’

감사실

박용찬 매니저

ENFP



직급 : 매니저

소속부서 : 감사실

담당업무 : 감사, 제도개선, 고충처리

이메일 : yongchan@innoaca.kr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용찬입니다. 2021년 5월 재단에 합류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대외협력팀에서 기관 홍보와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 했고, 이후 감사실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나 호기심 생기는 일은 지나치지 못하고 모두 경험해 보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게 저를 재단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은 상세하게 어떤 것인가요?

A: 감사, 제도개선, 고충처리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 업무는 재단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복무, 회계, 보안 등 각 요소에서 비위행위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점검 및 조치하는 업무입니다.

물론 외부의 감사에도 대응을 해야해요. 제도개선 업무는 재단의 규정이나 지침에 보완이나 수정, 도입이나 폐기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 권고하는 업무입니다.

고충처리는 민원이나 신고, 상담 요청 등에 대한 접수와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님에게 이노베이션아카데미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A: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씨앗인 것 같습니다. 인재 양성 사업의 특성상 당장의 결과 보다도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거쳐가신 분들이 미래에 가져올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씨앗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동시에 저 또한 하나의 씨앗으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요?

A: 21년도에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 기업과 연계하여 약 2주간의 ‘산학협력 해커톤’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명 가량의 교육생분들이 밤낮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코드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기술 스타트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하며 간접 창업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A: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과정이 적법하고 윤리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다른 부서나 조직에 몸담게 되더라도 국가 정책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끊임없이 관심 가지며 개인의 발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대외협력팀

송현지 매니저

ESTP



직급 : 매니저

소속부서 : 대외협력

담당업무 : 홍보

이메일 : hyunjee.song@innoaca.kr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송현지 매니저입니다.

홍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 외 기업협력, 교육생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은 상세하게 어떤 것인가요?

A: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론관리 및 홍보입니다. 42서울, 'Project-X' 등 재단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미디어, 언론 등 대외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육생 취업지원 업무입니다. 기업과 협력하여 채용 설명회,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등 교육생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 업무입니다. 정부관계자, 기관, 기업 등 외부 방문객에게 재단이 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에게 이노베이션아카데미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A: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또다른 통로로 이어주는 '문'입니다.

매달 각국의 42 캠퍼스 홍보 담당자와 현황 공유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는데 학력, 전공,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이 모인 이곳을 보면 다른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홍보 담당자들과 현황 공유를 하다 보면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재단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교육생들이 멋진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요?

A: 앙골라 영부인께서 재단에 방문 했던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2루안다 캠퍼스 개소를 앞두고 영부인, 대사관 등 앙골라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42서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A: 대외협력팀은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안테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장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고 부정적 이슈가 될지 재빠르게 파악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널리 전파하고 부정적인 이슈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직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호기심 많은 예술가’

전략기획팀

이해솔 매니저

ISFP



직급 : 매니저

소속부서 : 전략기획팀

담당업무 : 사업관리

이메일 : haesol@innoaca.kr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해솔매니저입니다.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공기업·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고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은 상세하게 어떤 것인가요?

A: 저는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안내하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의 협약과 예산 편성, 예산 변경, 연차평가 등 정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에게 이노베이션아카데미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A: 교육 과정을 보면 ‘낯선 여행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발자들이 함께 모험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끝에 난관을 극복하여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보람찰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로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아가 방향을 고민하며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교육생분들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전국의 대학, 기관,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며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요?

A: 전략기획팀에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총괄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많은 직원분이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더 많은 성과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A: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1차 5개년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중요한 시기 만큼 사업 기획·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좋은 팀장님, 팀원,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이시간이 즐거운 일로 가득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3

부록

'Project-X' 기능 검증의 해	34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39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 공유 컨퍼런스	42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45
42서울 이벤트 (월렛마켓, 42ish, 수요지식회, 글로벌 밋업)	49
42서울 교육생 앰배서더 콘텐츠 결산	53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주요 영상 보기	57



'Project-X' 기능 검증의 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SW개발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T업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SW개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강의 중심인 SW교육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어 국가적 SW인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Project-X'를 이제 세상에 선보이려 합니다. 'Project-X'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Project Based Learning)과 동료학습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제작 중인데요.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하고 협업할 수 있어 무한한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Project-X'는 42서울 심화 과정생과 대학교, 지역 지자체와 협업하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Project-X'가 가져올 SW교육의 미래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어디서 '한' 동료학습 해본 전문가들이 모였다! 'Project-X' 기능 검증단

'Project-X'의 가장 큰 특징은 동료학습 플랫폼이라는 점인데요. 동료와 함께 학습하면 토론과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소프트 스킬(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등)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웹 기반 플랫폼에서 동료학습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Project-X'의 큰 과제였습니다. 때문에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료학습의 달인들에게 기능 검증을 맡겼는데요. 바로 42서울 심화 과정생들입니다. 'Project-X' 기능 검증단에는 비전공자 출신, 군인, 스타트업 창업, 일반회사 근무, 신문방송학과 등 다양한 경력이 있는 심화 과정생들이 참여했는데요.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시선으로 4주 동안 'Project-X'의 기능을 검증했습니다.

'Project-X' 기능 검증단은 AI팀, 웹 서비스팀, 게임팀 등 'Project-X'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SW분야에 따라 팀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주 차: 학습활동 경험 및 문제점 찾기



2주 차: 학습활동 경험 및 문제해결점 제시



3주 차: PBL 콘텐츠(문제) 내용 개선



4주 차: 다른 팀 PBL 콘텐츠 재검증 및 개선

총 4주 동안 테스트 검증단은 'Project-X'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했는데요. 각각 1위와 2위를 수상한 게임 2팀과 웹서비스 2팀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1위 게임 2팀



2위 웹서비스 2팀



3위 웹서비스 4팀

게임 2팀

수상하게 된 비결이 있나요?

A: 게임 2팀: 3주차에 Unity(유니티)로 게임을 만들어 시연 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PBL 과제들이 수학적힘책처럼 단순히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제끼리 유기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과제를 완료하면 게임 하나가 완성되는 문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Project-X'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나요?

A: 게임 2팀: 문제 난이도가 초심자를 위한 난이도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세부적으로 초심자/중급자 /고급자로 나눠서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웹서비스 2팀

수상하게 된 비결이 있나요?

A: 웹서비스 2팀: 저는 42서울에서 동료평가를 많이 수행했어요. 동료평가 능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과제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역량이 이번 'Project-X' 테스트 검증단 기간에도 발휘된 것 같습니다.

'Project-X'가 기존 부트캠프가 가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웹서비스 2팀: 사실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부트캠프는 정말 많은데요. 취업할 때, 자기의 실력을 검증해주는 플랫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고, 자기소개서와 코딩테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기업에 어필해야만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Project-X'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크게 경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roject-X'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2023년엔 42서울 심화 과정생 외에도 SW중심대학과 지역인재양성기관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42서울 심화과정생과는 달리 동료학습을 처음 경험해 본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혁신적인 만큼 새로운 교육 방식이라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학생들은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올해 쌓은 데이터로 더욱 발전될 'Project-X'를 기대해 봅니다.

기관	운영기간	운영내용
 Innovation Academy	23.07.17.~23.08.11.	시스템 기능성 및 안정성, 콘텐츠 효용성 검증
 건국대학교	23.10.27.~23.11.24.	Java/Python 프로그래밍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3.10.30.~23.11.22.	가상증강현실응용 실습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23.11.01.~23.12.08.	캡스톤디자인 퍼실리테이터 제공
 OAE 우송대학교 WOOSONG UNIVERSITY	23.11.09.~23.11.30.	통계, 컴퓨팅사고와 프로그래밍 실습과정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Daegu Digital Innovation Promotion Agency	23.10.20.~23.11.17.	Java/Python 프로그래밍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23.11.01.~23.11.29.	Java/Python 프로그래밍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우송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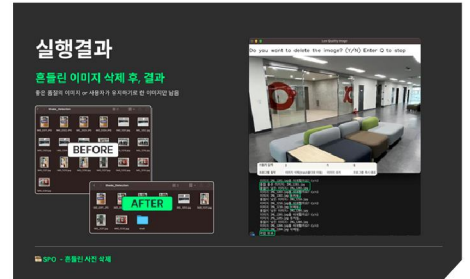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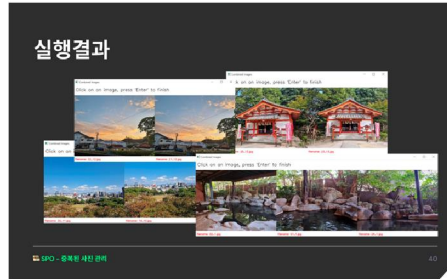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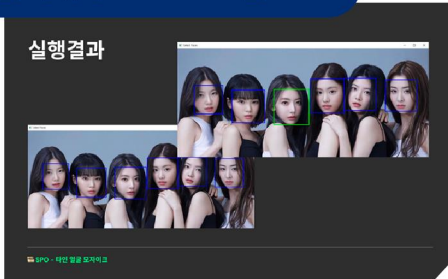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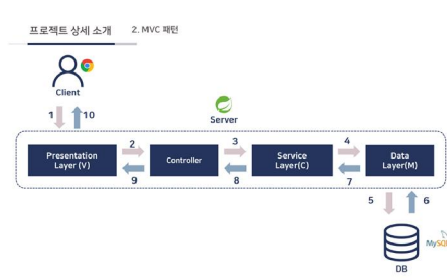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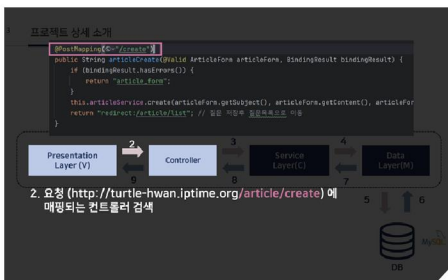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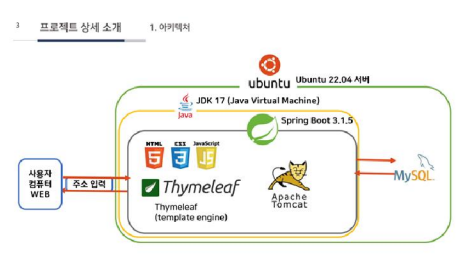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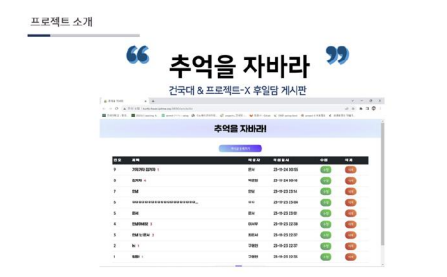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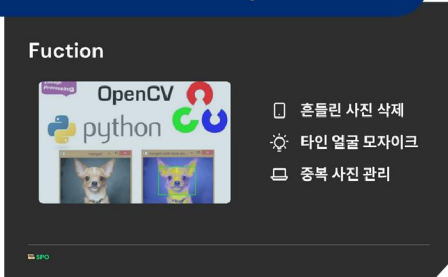
성남시청소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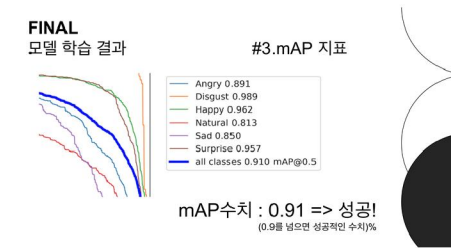
'Project-X' 시험운영 결과물들!

건국대학교 Java 2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Python 1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Python 4팀



Project-X

나에게 'Project-X'란 OOO다.

건국대학교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통해 'Project-X'를 체험해 본 두 명의 교육생, 특별히 'Project-X'를 체험해 본 유튜버 조코딩님은 'Project-X'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수지 교육생

A: 저에게 'Project-X'란 '다정한 넘어짐'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도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넘어지면 좀 덜 아프게 넘어지고 일어설 때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다정한 넘어짐', '다정한 발걸음' 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김예은 교육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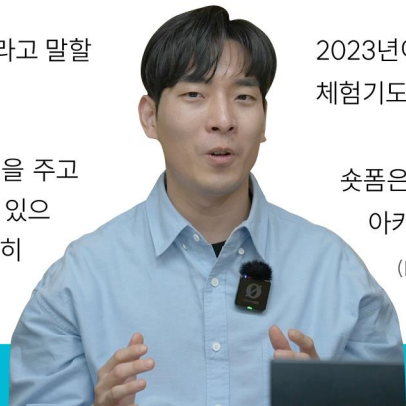
A: 저에게 'Project-X'란 '협업'입니다. 각각의 다른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자 '협업'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 조코딩

A: 저에게 'Project-X'란 '현업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도 겪는 서로의 코드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교육 단계에서부터 체험해 볼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이 가기 전! 유튜버 조코딩님의 'Project-X' 체험기도 기대해 주세요!

숏폼은 조코딩 유튜브 채널에서, 풀버전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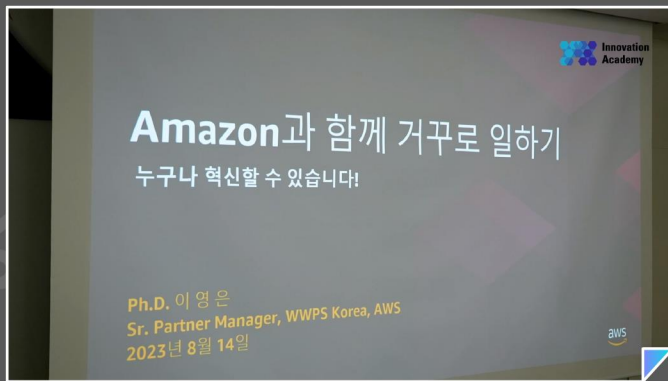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user-dc9wm5wr3d>)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교육생들의 역량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실패 리스크가 수반되는 창업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이하 부트캠프)는 평소 창업을 희망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교육생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신청 팀 중 10개 팀을 선정해 교육과 코칭, 프로덕트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10개 팀은 2023년 8월 14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사업화(창업) 교육과 아이템 기획을 시작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는 특별히 AWS(Amazon Web Services) 임직원이 강연을 함께해 주셨어요. 아마존의 워킹 백워드(Working Backward, 기존의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거꾸로 분석하며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방법) 강연이었는데요.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니즈를 파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여한 교육생들의 느낀 점을 짧은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쿨쿨’팀 김원 교육생

팀과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 주세요.

A: 저희는 쿨쿨이라는 팀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수면무호흡증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덕트는 B2B 솔루션과 B2C 솔루션 총 2가지 제품이 나올 예정인데 올해 말 정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의사결정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이 많고 물어 물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42서울 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부트캠프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A: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해소됐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AWS(Amazon Web Services)라는 글로벌하고 큰 대기업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장 경험을 전해주셔서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nocking’팀 송승운 교육생

팀과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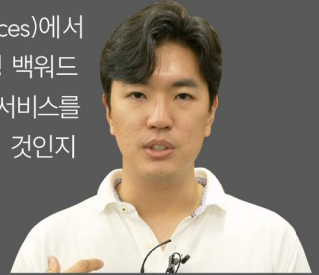
A: 저희 Knocking 팀은 기업 문을 두드리는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B2C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직 플랫폼들이 일반적으로 B2B 사업을 하다 보니깐 구직자들이 구직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요.

특히 이력서 같은 것이 각자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저희 팀은 모두 다 멤버(42서울 본과정을 모두 마친 교육생)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구직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를 ‘우리 직접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팀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부트캠프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A: AWS(Amazon Web Services)에서 오셔서 긴장 많이 했는데 워킹 백워드 강의를 들으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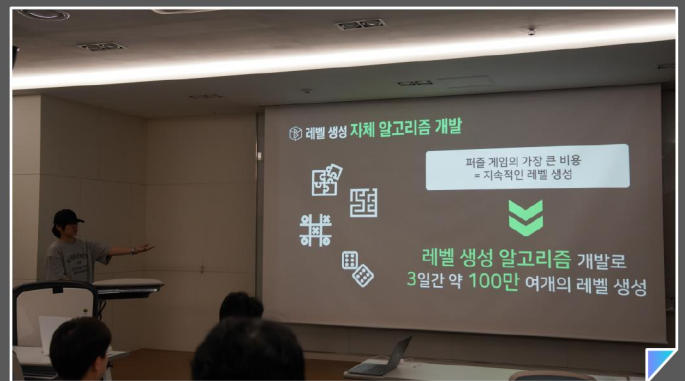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공급자이지만 사실 직접 쓰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고, 주변에 있는 42서울 멤버들, 구직자의 의견을 많이 들으며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상팀의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 목차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아이템 기획 기간 이후 팀별 필요 분야(기술/사업화/마케팅 등)에 대해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최소기능 제품(MVP)를 제작했어요.’

- 대상팀 SOOBAK -

9월 6일 진행된 프라이빗IR에서 최종 발표를 마치고 3개의 수상팀이 결정됐는데요. 대상에는 ‘보상 시스템을 통한 동기부여 매커니즘 기능을 보유한 교육용 게임의 ‘SOOBAK’팀, 최우수상에는 구직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B2C구직 플랫폼의 ‘Knocking’팀, 우수상에는 IoT 장비와 APP을 통한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원스톱 케어 솔루션 ‘쿨쿨’팀이 선정 되었어요. 수상의 영예를 얻은 교육생분들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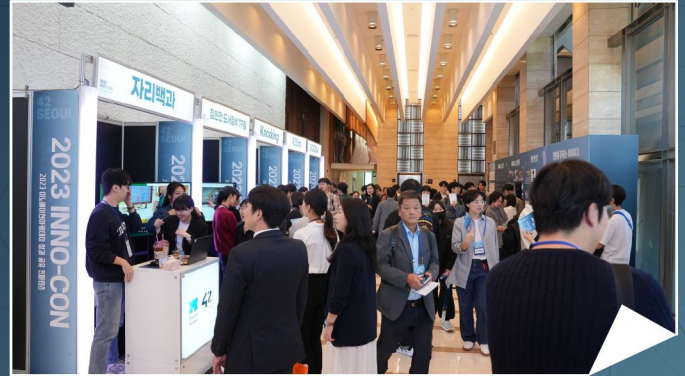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성과발표회 - 대상팀 SOOBAK 발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지난 5년, “2023 성과 공유 컨퍼런스, 이노콘”

2023년 10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재단의 지난 성과를 모두 모아 한눈에 보는 2023 성과 공유 컨퍼런스 이노콘이 열렸습니다.

이번 이노콘에는 10기 교육생을 포함해 산·학·관·연 관계자 27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수 성과물이 전시돼 있는 로비

많은 분의 축하 말씀으로 포문을 연 2023 이노콘!



개회 선언하는 전영표 학장

이번 이노콘은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개소한 지 4년 2개월 (2019년 8월 ~ 2023년 10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 됐는데, 의미있는 숫자인 만큼 지난 4년 2개월은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대한민국 IT생태계에 발자국을 내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재단 소개가 담긴 오프닝 영상과 함께 해외 캠퍼스의 축하영상으로 이노콘의 막이 올랐어요. 전영표 학장님의 힘찬 개회 선언과 발전 방향 브리핑 후 서정연 이사장님의 따뜻한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이노콘에는 42서울에 새롭게 합류하는 10기 교육생들이 함께했는데, 서정연 이사장님은 “SW관계자분들과 선배 교육생들은 후배 교육생들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아끼지 말아 달라” 며 “재단도 원팀이 되어 교육생들이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님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도 함께 무대에 올라 격려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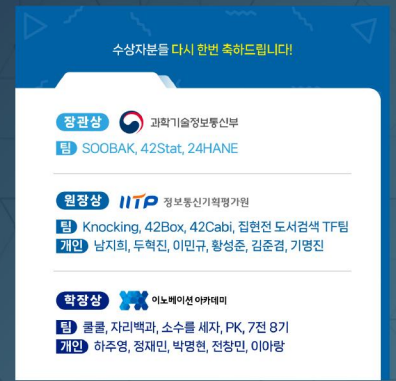
영광의 시상식

개회식이 끝나고 지난 1년 동안 활약한 교육생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는 학업 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포함해 교육생들의 개발 역량과 팀 프로젝트 협업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대회가 열렸는데, 이번 이노콘에서 영광스러운 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총 23팀/인 수상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상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재단의 한 해를 돌아보는 이노콘에서 교육생들의 노력을 치하한다는 것은 교육생들의 노력이 곧 재단의 성과라는 뜻이겠죠. 수상한 교육생분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역사의 한 권을 장식했으니 더욱 뿌듯해 하셔도 좋습니다.



2023 이노콘 요약

SW교육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Project-X’를 보라!



‘Project-X’ 발표와 시연 중인 SW개발단 곽병권 단장

영광의 시상식을 마치고 SW개발단 곽병권 단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 시스템 ‘Project-X’의 발표와 시연을 위해서였는데요. 산·학·관·연 많은 관계자가 모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Project-X’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Project-X’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42서울을 운영하며 얻어낸 동료학습 노하우와 장점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형 SW산업 수요에 맞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작 중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202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Project-X’는 지난 기간 동안 C언어, JAVA, Python, DevOps와 알고리즘의 이해 등 기초적인 CS(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교육을 통해 기본기 있는 교육생을 양성하고, 다양한 심화 교육 과정을 추가해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Project-X’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Project-X’에게 지난 2023년은 플랫폼 안정화와 시험 운영 테스트를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SW중심대학과 지역인재 양성기관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능 검증’하고 피드백을 통해 고도화 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우송대학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5개 대학교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등 여러 지자체와 협업으로 수도권 밖에서도 교육 인프라와 강사 공급에 제한 없이 우수한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Project-X’ 향후 추진 계획

계획하고 있는데요. 2023년 진화한 모습을 증명한 ‘Project-X’!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나아가 SW교육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Project-X’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NEW FACE 등장! 42서울 10기 발대식!

발대식에서는 6기 황성준 교육생이 환영사를, 10기 이현준 교육생이 다짐사를 낭독했습니다. 환영사를 낭독한 6기 황성준 교육생은 이번 E-Book 인터뷰에도 수록된 부트캠프 참가팀 '이때'팀의 팀장이자 코알리송 '건' 마스터, 50명이 넘는 창업 동아리 Founders의 동아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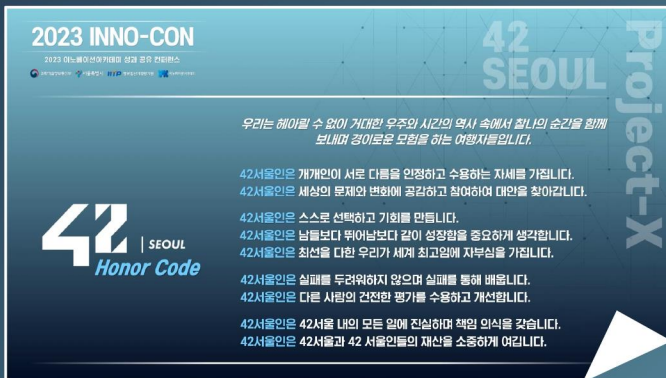


황성준 교육생의 환영사

42서울 입과 후 1년 6개월을 바쁘고 낭비 없이 보내온 교육생인 만큼 10기 교육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했는데요. 새롭게 합류하는 10기 교육생들이 본인보다 더 재밌고 멋진 경험들로 42서울에서의 시간을 채우길 바랍니다. 나아가 42서울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길, 또 가치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 성장하길 권유했습니다.

황성준 교육생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외면하는 건 쉽고 혼자 공부하는 건 편합니다. 하지만 42서울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과제만 하다 떠나는 재미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라며 동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멋진 환영사에 10기 교육생들이 모두 일어나 다짐사로 답했습니다. 다짐사는 이현준 교육생이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우주와 시간의 역사 속 찰나의 순간을 함께 보내는 여행자들이 된 10기 교육생들! 아무래도 우리 모두 운명인거겠죠. 42서울에 온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현준 교육생이 대표로 낭독한 다짐사

42서울 교육생의 품격, 우수 사례 성과발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2부에는 성과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상식 때 무대에 올랐던 영광의 얼굴들이 다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상하는 선배 교육생들을 바라보는 10기 교육생들의 눈이 동경과 부러움의 눈빛이었다면, 발표하는 선배 교육생들을 바라보는 10기 교육생들의 눈빛은 존경과 야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내년엔 저 무대에서 발표하겠다고 다짐한 교육생도 있었겠죠. 내년에 직접 무대에 설 10기 교육생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대상 SOOBAK 최진영
(보상 시스템을 통한 동기부여 매커니즘 기능을 보유한 교육용 게임 서비스)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대상 42Stat 주예은
(42 API를 가공하여 42서울 교육생의 학습 통계를 제공하는 반응형 대시보드 웹 프로젝트)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최우수상 Knocking 한준혁
(구직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B2C 구직플랫폼 제공
지원현황, 면접일정, 직무 적합도 등 관리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집현전 도서검색 TF팀 나예진
(도서 검색 및 추천 도서 목록 등 집현전 웹 서비스 기능 고도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우수상 자리백과 조현진
(42서울 회의실 및 자리 상태 원격 확인 서비스)

교육생 네트워킹과 경품 추첨 이벤트를 끝으로
2023년 이노콘은 마무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42서울 교육생 모두 성장을 거듭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뤄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42서울 교육생들이 가져올 SW산업의 유쾌한 진화!
내년에 꼭 함께해요!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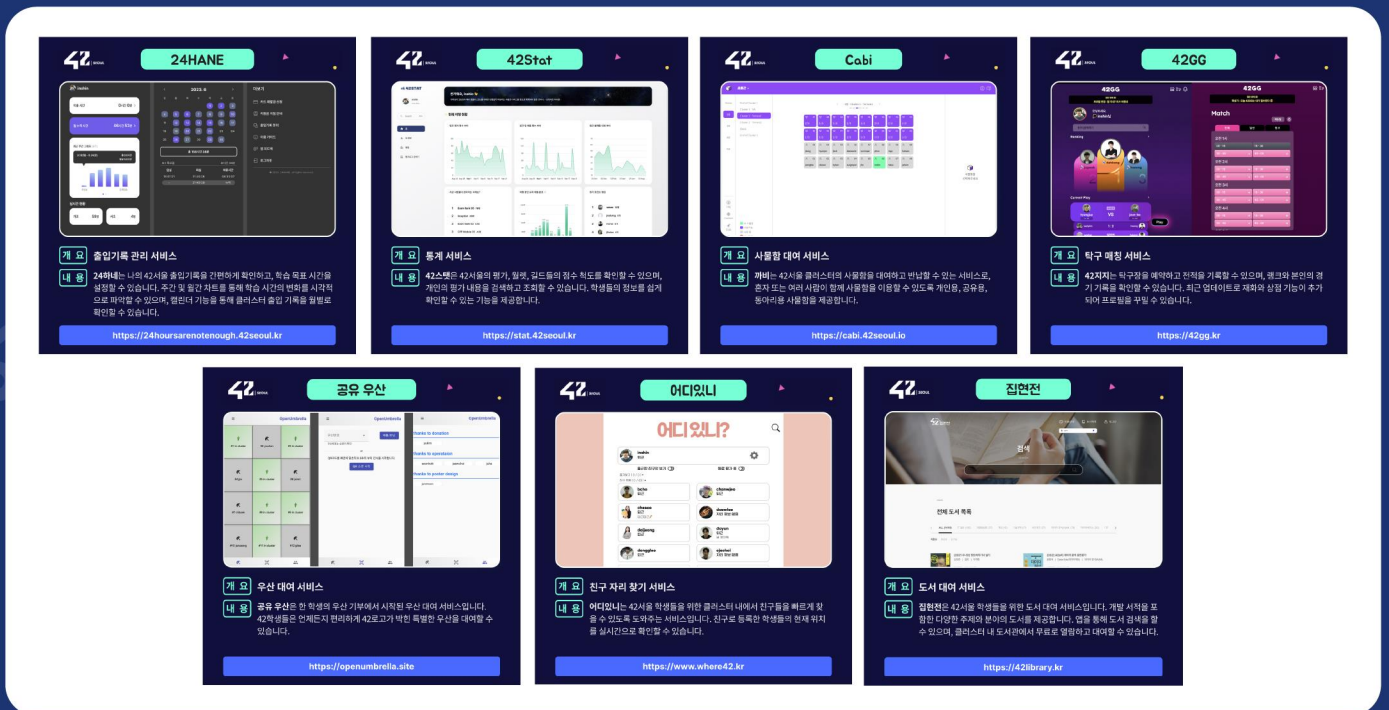
부트캠프가 교육생들의 창업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대회였다면,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이하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오롯이 42서울 교육생들을 위한 대회였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슬기로운 42 생활(Life is 42! challenge) 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42서울 생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모두 접수 받았어요. 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통해 교육생들의 42서울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대회가 진행됐다는 뜻인데요.

42서울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기존 서비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2서울에는 교육생들이 클러스터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산을 체계적으로 대여하고 관리하는 '공유 우산' 서비스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에게 들어보는 게 좋겠죠!

42서울 앰배서더 2기 inshin님께 소개를 맡기겠습니다. 이 중 수상자들이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42서울 앰배서더 2기 inshin 9월 카드뉴스 - 42서울 학생들이 만든 42서울을 위한 서비스

이번에 진행된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의 특징은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한 개발 기간과 해커톤 기간을 부여하면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42시간 연속 해커톤은 이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의 꽃이었다고 할 만큼 생산적인 시간이었어요.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한정된 시간 안에 개발하는 공모전의 형태를 말합니다.

42시간 동안 연속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체력적으로 무척 힘든 일인데요. 특히 한 글자의 오타도 치명적인 오류로 돌아올 수 있는 SW 개발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 더욱 지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생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이노베이션아카데미도 교육생들에게 해커톤 키트를 제공했는데요. 입기만 해도 개발 능력치가 올라갈 것 같은 42서울 티셔츠와 마라톤의 배번호처럼 의연함을 다지게 되는 해커톤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또 교육생들이 밤샘 작업에 지치지 않도록 돌발 이벤트와 야식&간식을 제공했습니다. 해커톤에 즐거움을 더해 교육생들이 잠시나마 피곤함을 잊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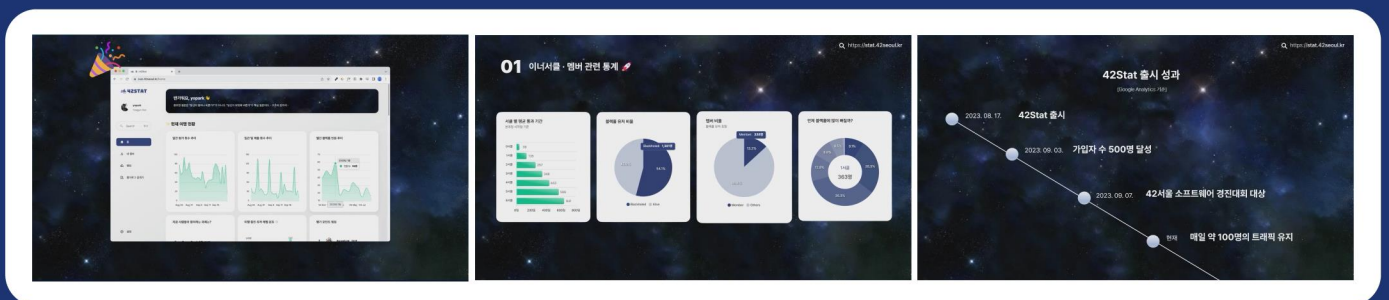


작은 열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커톤에 참가한 교육생 모두 무사히 완주했는데요. 교육생들이 이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와 해커톤으로 자신의 한계를 한정짓지 않고 넘어서는 경험을 했길 바랍니다. 9월 7일 결선 심사로 42stat이 대상을, 집현전TF팀이 최우수상을, 자리백과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대상을 거머쥔 '42stat'팀은 42서울의 API를 가공해 교육생의 학습 통계를 제공하는 반응형 대시보드 웹 프로젝트입니다. 42서울은 2,500여명의 교육생이 거치며 88,000회(2023년 9월 25일 기준)의 평가가 쌓였는데요. 42stat은 42서울의 방대한 API에서 DB를 활용해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여주고, 인트라와 독립적인 서버를 두어 빠른 속도로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표적으로 42서울 본과정 단계인 0~6 서클별 평균 통과 기간, 블랙홀 유저 비율, 본 과정을 모두 통과한 멤버 비율 등 교육생들이 장기적으로 학습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가공해 제공했어요.

42서울 전체 교육생의 지표를 포함해 교육생 개인의 객관적인 통계, 다양한 재미요소까지 담겨있어 8월 출시 이후 많은 교육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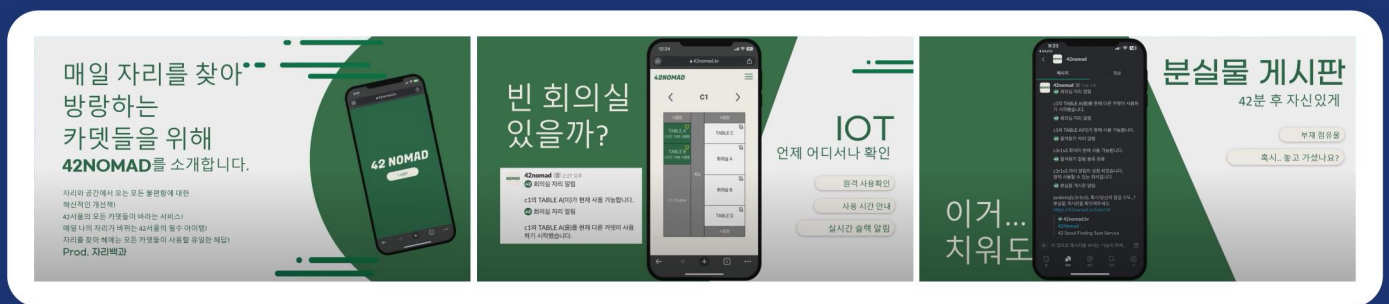


최우수상을 수상한 '집현전 도서검색 TF팀'은 도서 검색 및 추천 도서 목록 등 집현전 웹 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통해 수상했습니다.

집현전은 42서울의 교육생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1,019종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도서 대출/반납/예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019종의 도서 중 860종의 도서가 IT 일반, 개발방법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웹프로그래밍, 컴퓨터시스템 등 개발 관련 서적인데요.

방대한 개발 서적 중 42서울 학습 과정에서 유용했던 도서 목록을 추천하고 공유하기 위해 집현전 웹 서비스의 추천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인트라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가 진행 중인 과제별로 추천 도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또 검색 키워드에 대한 로직 개선, 최근 검색어 기능과 인기 검색어 순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일거삼득인 대회였는데요.

내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는 또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해
42서울 생활을 즐겁게 만들까요?



공부로 달궈진 머리를 식혀주는 42서울의 이벤트들!

매일매일 개발 공부에 매진하는 교육생들, 한겨울에도 새롭관의 클러스터는 뜨겁습니다.
42서울엔 교육생들의 과열된 머리를 식혀주는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 거리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까요?



얼마면 돼! 몇 '알타리안 달러'면 되냐고! 월렛마켓

42서울엔 특별한 재화가 존재합니다. 바로 '알타리안 달러'인데요. 교육생들엔 월렛포인트로도 자주 불립니다. 42서울에선 이 알타리안 달러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어요. 어릴 적 교회에서 달란트로 떡볶이를 사 먹었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월렛마켓에서는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파는데요. 오랜 시간 개발에 지친 손목을 지켜주는 버티컬 마우스, 쌀쌀한 클러스터 출근길을 지켜주는 포근한 과잠(야구잠바)이 예시입니다.

특히 과잠은 42서울 교육생으로서 소속감을 높여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교육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어요. 오프라인 상품을 포함해 슬랙(42네트워크 커뮤니티케이션 툴) 인싸들을 위한 '프로필 사진 교환권', '슬랙 채널 개설권' 또한 준비돼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품은 인트라에서 구매한 뒤 상품이 준비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온라인 상품은 월렛마켓을 관리하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직원 holly님에게 DM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알타리안 달러는 어떻게 모으냐고요? 각종 봉사활동과 행사 지원, 체육대회 상품 등 적극적으로 42서울 활동에 참여하면 어느새 두둑해진 알타리안 달러를 볼 수 있어요. 돌아올 월렛마켓을 위해 열심히 42서울 활동에 참여해 봅시다.



출처: 앰배서더 2기
inshin 11월 카드뉴스



글로벌 카뎃(교육생)과 만남! 42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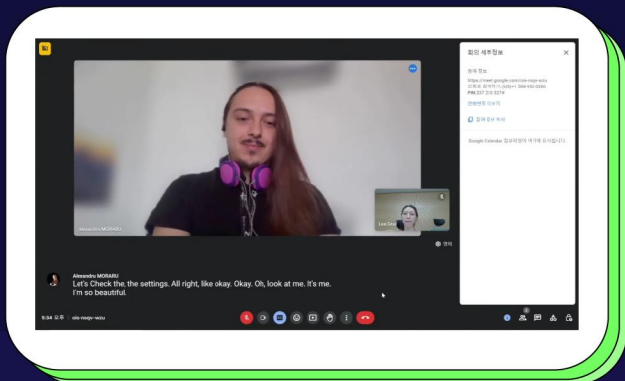
42ish는 글로벌 교육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실시간 라디오쇼입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직원이자 DJ인 soul님과 게스트가 함께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42ish에는 전 세계 다양한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교육생들의 댓글을 읽을 수 있어요.

42서울과 마찬가지로 미니셸(minishell) 과제와 다가오는 블랙홀 기간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반가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국적은 달라도 42네트워크는 하나입니다. 라디오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새롬관에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함께 진행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게스트는 Zoom이나 구글 Meet과 같은 화상채팅 툴을 이용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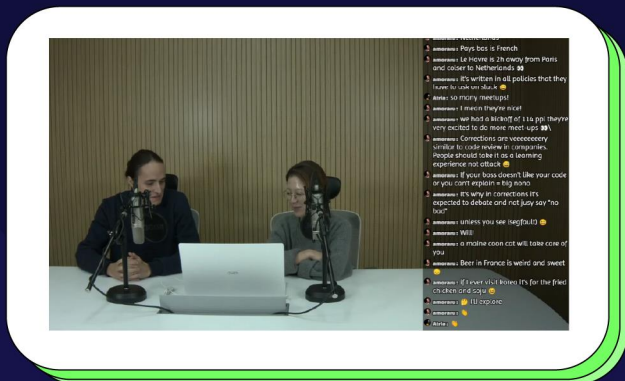
2024년에 화려하게 돌아올 42ish를 기대해 주세요!



42서울 실시간 라디오쇼 '42ish'



42르아브르 스태프 Alexandru MORARU



42서울과 에콜42를 모두 경험해 본 게스트 ede-thom



지식 총만한 수요일! 수요지식회

수요지식회는 교육생이 교육생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강연회입니다. 개발과 컴퓨터 과학에 대한 지식 공유도 많이 이뤄지는데요. 비전공자 출신에 다양한 배경이 있는 교육생들도 많기 때문에 매주 예측하기 힘든 폭 넓은 지식이 공유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교육생이 취미로 가지고 있는 커피와 사진에 대한 강의를 포함해, 축구선수 메시의 연봉을 사례로 들어 자산 가치 평가 개론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6일에는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강연자들이 다시 한번 연단에서는 '2023 수요지식박람회'가 열렸어요.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직원 SongPD님의 키노트스피치에 이어 jungyeok님의 '한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연', ekwak님의 '개발자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jmaing님의 '그래픽스 렌더링 개요', minjungk님의 'GitHub (깃허브)로 협업하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2023 수요지식회박람회에서는 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컨설팅 부스가 함께 진행됐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킨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버티컬 마우스 행운권 이벤트도 진행됐다고 하니, 많은 걸 얻어 갈 수 있는 수요일이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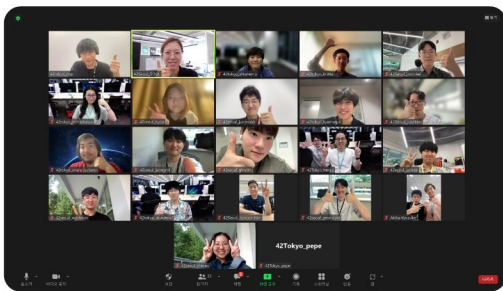


수요지식박람회

한 손에는 4 다른 한 손에 2! 글로벌 밋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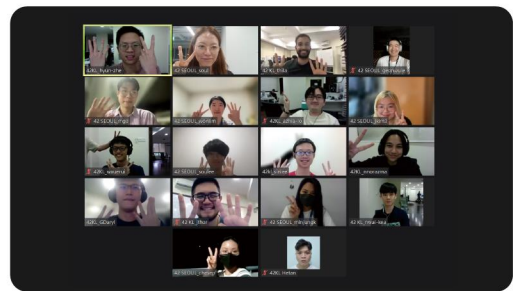
글로벌 밋업은 유럽과 아시아 등 **31개 국가 54개 캠퍼스**의 다양한 해외
교육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국가의 캠퍼스와 만났는데요.
화상채팅을 통해 소규모 그룹 미팅과 미니게임을 즐기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글로벌 교육생들을 만날지,
올해 만난 카뎃(교육생)을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볼까요?



42 | TOKYO

06.17. 42도쿄
(42 TOKYO,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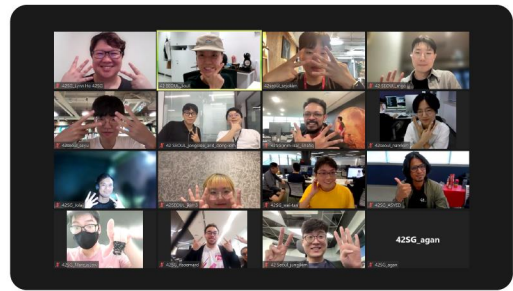
42 | KUALA LUMPUR
Sunway Education Group

09.14. 42쿠알라룸푸르
(42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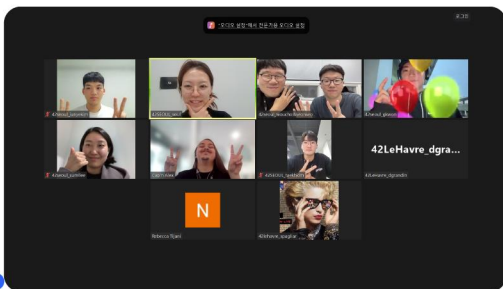
42 | ADELAIDE

09.15. 42아들레이드
(42 ADELAIDE,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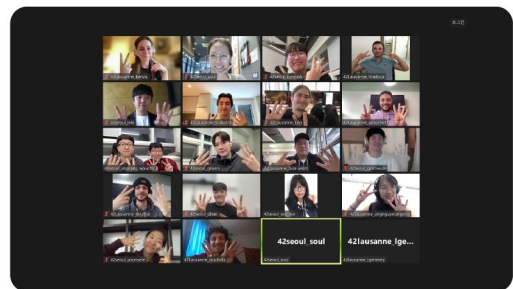
42 | SINGAPORE
SUTD

09.26. 42싱가포르
(42 SINGAPORE,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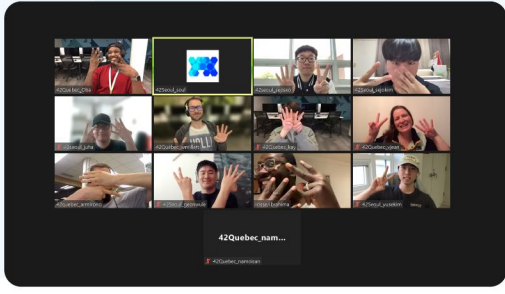
42 | LE HAVRE

10.26. 42르아브르
(42 LE HAVRE,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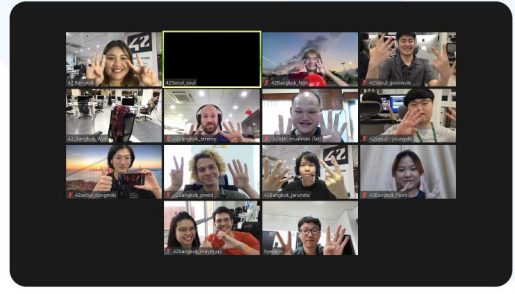


42 | LAUSA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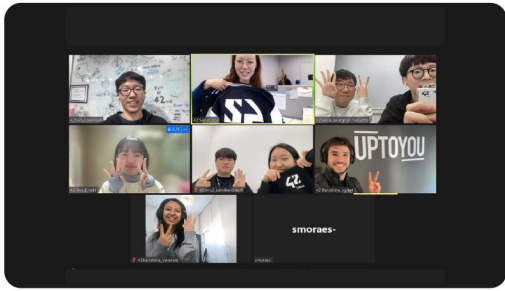
10.19. 42로잔
(42 LAUSANNE,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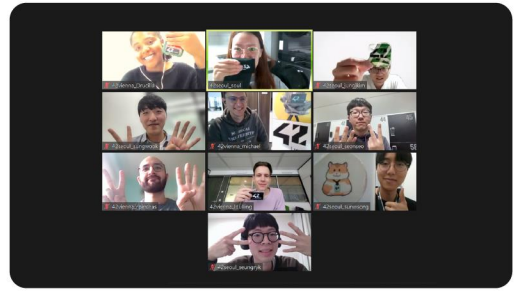
42 | QUÉBEC
 10.29. 42퀘벡
 (42 QUÉBEC, 캐나다)



42 | BANGKOK
 KMITL
 10.26. 42방콕
 (42 BANGKOK, 태국)



42 | BARCELONA
 Fundación Telefónica
 11.21. 42바르셀로나
 (42 BARCELONA, 스페인)



42 | VIENNA
 11.24. 42비엔나
 (42 VIENNA, 오스트리아)



42 | BERLIN
 12.05. 42베를린
 (42 BERLIN, 독일)



42서울 앰배서더 2기 수료소감



daijeong

앰배서더 활동은 처음이었는데 친한 교육생분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동할 수 있어서 더욱 재밌었습니다. 콘텐츠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획부터 편집까지 평소에는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42앰배서더 활동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euiclee

달마다 콘텐츠를 고민하고 영상으로 그것을 풀어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들여 만든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는 걸 보며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42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kwon

개인적으로는 SNS에 일상을 잘 올리지 않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SNS 챌린지에 참여해 보며 42서울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습니다. 저는 항상 콘텐츠 소비자였는데 생산자 입장을 경험함으로써 더 풍부한 관점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inshin

콘텐츠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이 생각보다 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동료 앰배서더들과의 교류와 행사 참여도 행복한 경험이었고, 42서울을 대표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험은 진정으로 보람찼습니다. 이 경험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jkim3

42서울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던 42서울만의 베네핏이나 교육생들이 만든 여러 앱들과 동아리들을 앰배서더 활동을 하면서 더욱 잘 알게 됐습니다. 저만 알고 끝이 아니라 콘텐츠로 제작하면서 교육생 분들이나 예비 교육생 분들 또는 코딩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juha

원래 콘텐츠를 통해 42서울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즐겁게 마친 것 같습니다. 이미 콘텐츠를 올릴 작정으로 계획했던 소재와 소스들을 모두 올려서 뿌듯합니다.

surlee

인스타툰의 특성상 표지와 끝장을 제외하면 8컷이 최대 분량이에요. 42서울의 이야기를 분량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재구성하는 게 재밌기도 했지만, 이야기 분량을 줄이는 게 힘들었고 아쉬웠어요. 더 많은 이야기와 42서울 교육의 장점과 효용성을 많이 뽐내고 싶었는데 다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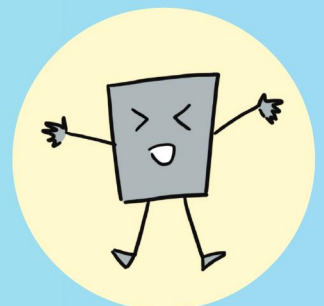
wonlim

1기에 이어 2기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여태 42서울에 다니면서도 몰랐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많은 분이 봐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더 보람차고 값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yusekim

처음 42서울 앰배서더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너무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동료에게 태블릿PC를 빌려 임시로 콘텐츠를 만들고 제출했는데요. 신청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라니! 뿌듯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듭니다. 최근에 우연히 42서울에 입과한 신규 교육생분이 라피신 신청 전에 제가 올렸던 콘텐츠를 재밌게 봐주셨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지나고 보니 '조금 더 열심히 할 걸'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래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42서울 파이팅!



예비 앰배서더 3기에게 한 마디!



daijeong

저는 콘텐츠를 같이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이 앰배서더 활동을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혼자 할 때보다 재밌었고, 수월하고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42서울의 장점들을 많이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

euiclee

아직은 42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모집될 앰배서더 3기분은 42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kwon

각자 앰배서더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저의 해석은 대외적 마케팅입니다. 저는 3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 방향으로 42서울이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예상과 결과를 비교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개선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이 3기 여러분께도, 42서울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inshin

앰배서더로 활동하며 42서울에 대한 제 애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앰배서더가 될 42서울 교육생 여러분,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콘텐츠들로 42서울의 미래를 더욱 밝고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42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길 응원합니다!



jkim3

앰배서더 2기분들이 콘텐츠를 정말 여러 주제와 방식으로 제작했는데 3기분들도 저희 2기처럼 재밌고 다양하게 멋진 콘텐츠 만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딩만 하다 보니 이런 다른 콘텐츠 만들 일이 드문데 앰배서더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니 꼭 많은 분이 신청하셔서 즐겁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juha

42 철학을 고민하는 글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에꼴 42 홈페이지에서 에꼴이 생각하는 철학을 읽어보시면 그 활동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외부에 이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겁니다. 3기 화이팅!

surlee

42서울 소속을 밝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구나' 라는 걸 IT 업계 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열심히 42서울 알려주세요!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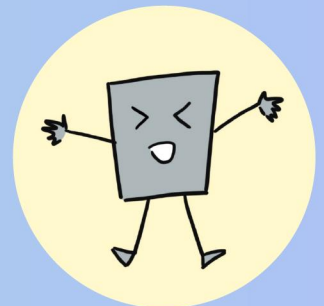
wonlim

3기분들은 어떤 재미있고 창의적인 콘텐츠들을 만드실지 궁금하네요. 1기와 2기에 이어 3기도 제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ㅎㅎ 앰배서더 3기의 콘텐츠가 벌써 궁금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yusekim

42서울에서 앰배서더는 본인이 속해있는 42서울이란 곳을 본인만의 콘텐츠로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동료들과 42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감 모먼트 등을 자주 이야기 나눴고, 이를 콘텐츠로 녹여내 다른 사람들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42서울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콘텐츠로 잘 소화해 42커뮤니티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파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42서울을 알려준 앰배서더 2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반기 주요행사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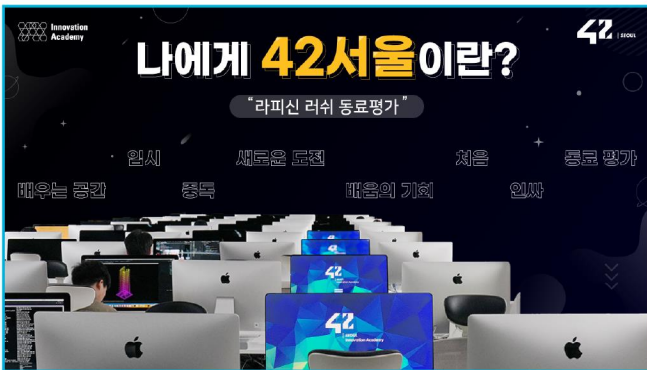
미미미누의 42서울 입학기



나에게 42서울이란? (1) 라피신 오프라인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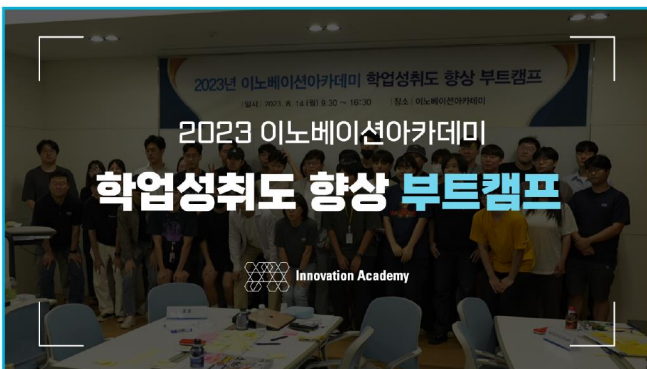
나에게 42서울이란? (2) 라피신 러쉬 동료평가



'Project-X' 기능검증단 Meet-UP 스케치 / 인터뷰



2023년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 오리엔테이션 스케치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스케치 & 인터뷰!



하반기 주요행사 영상

42서울 x PCCP 시험 현장을 가다!



2023 INNO-CON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 공유 컨퍼런스



'Project-X' 기능검증단 1개월의 기록
(동료학습, 산업수요형 SW학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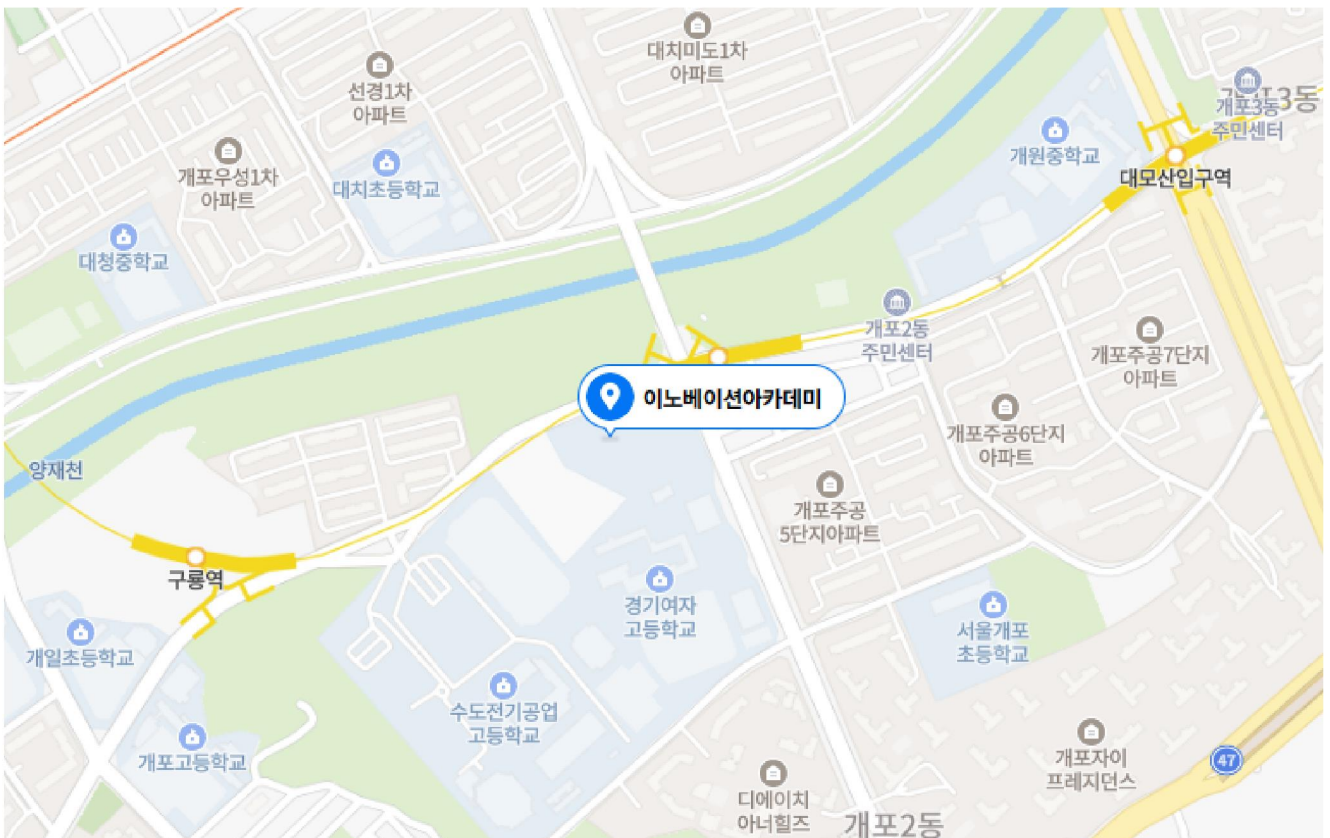


SNS 와 위치 안내

-  깃허브 <https://github.com/innovationacademy-kr/>
-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school/75512524/>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nno.ac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nno.aca/>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dc9wm5wr3d>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NxfExoxj

깃허브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서울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023
Vol.02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42서울과 Project-X의 창



문의

교육 관련 문의
qna
@innoaca.kr

제휴 제안
communication
@innoaca.kr

전화 문의
02 6177 2100

홈페이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https://innovationacademy.kr/>

42서울



<https://www.42seoul.kr/>



Innovation Academy